

코스피	코스닥
3089.65	783.67
(+17.95)	(+2.17)
금리 (한국예 9년)	환율 (원/달러)
2.454	1354.00
(+0.002)	(+4.00)



롯데지주 재무구조 개선 박차 시장 우려 털어낼까 관심 집중

롯데케미칼 부진에 지주사 타격
신평가들 일제히 신용등급 하향
비주력 자산 매각·구조조정 가속
계획 차질 땐 재무부담 가중 우려

롯데케미칼의 실적 부진 영향으로 롯데지주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지난해 장기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경된 것과 동시에 롯데지주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행보에 착수한 상황이라, 시장의 관심은 리스크 요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신평가사들은 롯데지주 신용등급을 하향 조치했다. 한국신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는 일제히 롯데지주 무보증 사채 등급을 AA-에서 A+로, 기업어음 등급을 A1에서 A2+로 조정했다.

신용도 하락의 주된 배경은 롯데케미칼의 실적 부진이다. 한국신평가는 롯데지주 신용등급 평가 리포트를 통해 “핵심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이 AA에서 AA-로 변경됨에 따라, 롯데지주 무보증 사채 신용등급 및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롯데지주의 신용등급은 롯데케미칼과 롯데쇼핑, 롯데웰푸드,



롯데타워 전경 사진 /뉴시스

롯데칠성 등 4개 자회사의 신용등급 결합 가중치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주력 자회사인 롯데케미칼이 중국발 석유화학 공급과잉 기조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내자, 롯데지주까지 그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실제 연결기준 롯데케미칼은 2022년 마이너스(-)7626억원, 2023년 -3477억원, 2024년 -8941억원, 2025년 3월 -126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기조를 이어 오고 있다. 이에 지난 30일 국내 신평가사들은 롯데케미칼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낮췄다.

이미 지난해 6월 국내 신평가사들에 의해 롯데지주 장기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경됐고, 지주사 역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나서고 있는 만큼 시

장 파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롯데지주는 재무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룹사별로는 지난해 롯데렌탈을 매각하고, 롯데케미칼의 경우 파키스탄과 인도네시아 자회사 지분을 매각했다. 유통 부문에서는 코리아세븐의 현금입출금기(ATM) 사업을 떼어내면서 약 1년 만에 대거 비주력 사업 정리에 나섰다.

또, 가장 최근인 지난달에는 자사주 524만 5461주를 롯데물산에 매각하면서 약 1448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 롯데지주는 지난해 3월 사업보고서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 및 신규투자 사업을 목적으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발행주식 총수 약 15% 내외의 자기주식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롯데지주가 비핵심 사업 구조 개편 및 보유자산 매각으로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자체 재무부담 확대 위험이 아직 존재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신평평가 관계자는 “보유자산 매각 및 사업구조 개편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시 자체 재무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유자산 매각 계획 성과 및 추가적인 계열 지원부담 수준, 지주사 재무부담 변동 추이 등이 주된 모니터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6월 수출 598억 달러, 4.3%↑ 반도체 역대 최대 150억 달러

미국의 통상압박과 글로벌 경기 둔화, 유가 하락 등 복합 악재 속에서도 지난달 수출이 전년대비 4.3% 증가하며 플러스로 반등했다. 특히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를 경신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다만, 미국의 관세 부과조치가 이어지며 올해 6월까지 누적 수출은 전년 동기 수준을 넘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6월 및 상반기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6월 수출은 59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하며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 상반기 전체 수출은 3347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03% 소폭 감소했다. <관련기사 3면>

올해 수출을 이끈 건 반도체였다. 6

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한 149억7000만달러를 기록, 단일 월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상반기 누적 반도체 수출도 733억달러로, 역대 상반기 중 가장 높았다.

특히 고부가 메모리반도체인 DDR5와 HBM 수요 확대, 제품 가격 상승 등이 반도체 수출 확대를 견인했다. 실제로 DDR5(16Gb) 고정가격은 1월 3.75달러에서 6월 5.10달러로 올랐다.

양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는 미국의 품목관세 25% 부과 등에도 선전했다는 평가다. 6월 자동차 수출은 63억달러로 2.3% 증가하며 역대 6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미국 관세 영향에도 핵심 주력 상품인 반도체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자동차 수출도 6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전체 수출 실적을 끌어 올렸다. 1일 경기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뉴시스

건설경기 침체, 성장률 0.4%p 끌어내릴 듯

상반기 건설투자 11% 급감
하반기 반등 기대감도 약화

건설경기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제성장률을 끌어 내릴 것으로 추정됐다. 이미 상반기 건설경기 침체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일 정도로 심각한 데다 하반기에도 전망이 밝지 않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수정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건설투자는 상반기 -11.3%, 하반기 -1.1%로 연간 6.1% 감소할 전망이다. 그간 착공 위축이 누적된 여파가 이어지고 있고, 분양 실적이 급감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감소폭으로 보면 상반기 뿐만 아니라 연간 전망 기준으로도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최악이다.

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투자 전망치는 3개월 전과 비교하면 3.3%포인트(p) 하향 조정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0.4%p 이상 끌어내릴 것으로 추정됐다.

공사비 부담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다.

상반기에 나온 지표로 보면 건설경기 침체는 예상보다 심각하다. 민간 건축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공공 중심의 토목경기마저 위축됐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당초 민간 중심의 건축경기 부진은 예상됐지만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등에 따라 공공물량이 전체 건설경기 부진의 일부를 상쇄해 줄 것

으로 기대했다”며 “실제로는 올해 4월까지 공공과 민간, 토목과 건축 전 부문에서 큰 폭의 감소세를 시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동성이 크지 않은 건설기성마저 올해 들어 4월까지 21% 급감했다. 감소폭으로 보면 1998년 3분기 이후 최대치다. 건설기성은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실적을 보여주는 지표다. 건설기업의 단기 실적 악화는 물론 고용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건설수주와 건축허가 및 착공 모두 줄었다. 건축허가와 착공이 올해 4월까지 누적으로 전년 대비 각각 21.4%, 22.5% 감소해 건설경기 회복세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안성미 기자 smahn1@

與 “3일 처리” vs 野 “3%를 불수용”

‘상법개정’ 협상 들어가는 與野
국민의힘 ‘일부만 수용’ 분위기

상법개정안을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 협상을 제안하면서, 여야 간 협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종료 전인 오는 3일 상법개정안을 처리하는 게 목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을 일부만 수용하자는 분위기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개정과 관련해 “송언석 대표께서 상법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세계개혁 패키지 논의 단서를 달았다”며 “저희는 시간끌기용이 아닌가 의심된다.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7월3일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고 상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추경안도 일단 처리를 목표로 하되 혹시 좀 미뤄지면 4일에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법개정안 원안이 대선 전 거부권(재요구권)으로 폐기되면서, 민주당이 재발의한 상법개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5일 ▲감사위원·감사선출시 지배주주 의결권 3%로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국힘, 새 비대위에 빨라진 전대 시계… 김 ‘잠행’ 나 ‘농성’ 안 ‘투어’ 한 ‘라방’
▲與 박선원 “尹정부 방첩사, 기무사 회귀시도… 내란 위한 사전작업” /사진 뉴시스

▲행안위 소위, ‘13조 소비쿠폰’ 추경안 여야 합의로 통과… 전액 국비로
▲경실련 “21대 대선 개발공약 예산·실현성 미지수… 공약 재탕 만연”

▲국회 복지위, ‘전공의 지원’ 예산 248억 복원한 추경안 의결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서 “대통령 뒤편 방통위원 지명해달라” 요청

태광산업, 화장품·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에 1.5조 ‘올인’

투자계획 실행시 연내 1조 집행
애경산업 예비입찰 숏리스트 포함
자사주 전량 3186억 교환사채 발행
조달자금 사업구조 재편 투입키로

태광산업이 2026년까지 총 1조 5000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화장품과 에너지, 부동산개발 사업에 진출한다. 주력 사업인 석유화학과 섬유 부문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함이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 계획에 대해 정정명령을 내려 자금조달에 제동이 걸렸다.

태광산업은 화장품·에너지·부동산 개발 관련 기업의 인수와 설립을 위해 조 단위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내년까지 집행할 투자 규모는 현재 보유한 투자자용 자금을 크게 초과할 것”이라며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올인’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화문 태광그룹 흥국생명빌딩 사옥. /태광그룹

태광산업은 투자 계획을 예정대로 실행하면 연말까지 1조원 가량을 집행한다. 신규 진입을 모색하는 화장품·에너지·부동산개발 관련 기업 인수에 자금의 상당 부분을 투입할 방침이다. 실제 태광산업은 애경산업 인수 예비입찰에서 적격 인수 예비후보(숏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태광산업은 현재 유보금으로는 투자자금을 충당할 수 없어 적극적으로 외부 자금 조달에 나섰다. 태광산업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회사가 보유한 현금성 자금은 1조9000억원 수준이지만 실제 신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은 1조원 미만이다. 기존 석유화학 및 섬유 부문에 5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고, 업황 악화에 대비해 3.5개월치 예비운영자금 5600억원도 보유해야 한다.

석유화학 2공장과 저용점섬유(LMF)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시설 철거와 인력 재배치에도 상당한 자금이 소요된다. 또 일부 나일론 생산공장과 중국 스판덱스 공장도 조만간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 추가 예비운영자금 확보가 필요하다.

앞서 태광산업은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186억원 규모 교환사채(EB) 발행을 의결했다. 태광산업은 내달 교환사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자금을 사업구조 재편에 투입할 예정이다.

태광산업은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 사업 목적을 ▲화장품 제조·매매 ▲에너지 관련 사업 ▲부동산 개발 ▲호텔·리조트 등 숙박시설 개발·운영 ▲리츠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에 대한 투자 ▲블록체인 기반 금융 연관 산업 등으로 대폭 확대한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 계획에 대해 발행(처분)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누락돼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정정명령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2대 주주인 트러스트자산운용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 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트러스트 측은 “이사회가 발행 조건과 거래 상대방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채 의결을 강행해 상법 시행령 제2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당 순자산가치의 4분의 1 수준으로 대규모 자사주를 처분하는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며 이사회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금감원

카드 발급·ATM 사용 후견인 금융불편 개선

후견인도 현금·체크카드를 발급받고 ATM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 계약 전 과정에서 외국어 안내장을 제공하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보험 이용 편의도 함께 개선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일 제9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후견인의 금융거래 이용 불편 개선 ▲외국인 보험계약자 편의성 제고 등 두 가지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령화로 인해 성년후견제도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금융사들이 권한이 있는 후견인에 대해서도 카드 발급이나 ATM 사용을 제한해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한 후견사건 접수건수는 2013년 1883건에서 2023년 1만190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어려울 때 진짜 실력 드러나... 힘 모으면 크게 도약”

삼성SDI 창립 55주년 기념식

최주선 대표이사

“현재 반성하되, 미래통찰 지혜 필요”

삼성SDI가 창립 55주년을 맞아 1일 경기도 용인 기흥 본사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최주선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장기근속자, 우수 사원 등 주요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과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최 사장은 기념사에서 “어려울 때일 수록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며 “우리의 저력과 가능성을 믿고 힘을 모은다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배터리 시장의 불확실성과 대내외 위기 상황을 거론하며 “등골이 오



1일 삼성SDI 기흥 본사에서 개최된 55주년 창립기념일 행사에서 최주선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왼쪽 위)과 주요 경영진, SDI인사 등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삼성SDI

싹해질 때도 있다”고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시장은 끊임없이 변한다”며 “현재를 반성하되, 미래를 통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리면서 ▲차별화된 기술력 확보 ▲제조 경쟁력 재건 ▲극판·조립·팩 기술 정상화 ▲전자재료 신사업의 성공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삼성SDI는 최근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으며,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전자재료 등 신사업 육성도 본격화하고 있다. 최 사장은 “여러분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가슴 벅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며 “책임지고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취임 이후 첫 창립기념식에 나선 최사장은 임직원들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전하며 조직의 결속을 당부했다. /이혜민 기자 hyem@

미국 車 수출 ↓... EU서 전기차 중심 호조

» 1면 ‘6월 수출 598억 달러...’서 계속

대미 수출은 감소했으나, 대 EU 수출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인 가운데, 중고차 수출(6.7억달러, +67.9%)도 크게 증가하며 역대 최초로 5개월 연속 60억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다만, 6월까지 누적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364억달러로 마이너스를 피하지 못했다. 대미 수출 감소와 미국 현지 전기차 생산 본격화 등에도 하이브리드차 수출 호실적이 감소 폭을 제한했다.

이외에도 바이오헬스 수출은 바이오 의약품을 중심으로 36.5% 증가한 16억 6000만달러로 6월 중 역대 최대였고, 선박 수출도 63.4% 증가한 25억달러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증가했다.

다만 6월 석유제품(-2.0%), 석유화학(-15.5%) 수출은 제품가격이 연동되는 유가 약세 영향으로 감소 흐름을 지속했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지역 중 6월에는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7개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했다. 대미국 수출은(112.4억달러, -0.5%) 보험세, 대중국 수출(204.2억달러, -2.7%)은 소폭 감소세다.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선박·철강제품을 중심으로 2.1% 증가한 97억6000만달러로 1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고, 대 EU 수출은 자동차·차부품, 선박, 석유제품 수출이 증가하며 14.7% 증가한 58억달러를 기록, 4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민주당 일각 ‘3%룰’ 제외 상법개정 의견

» 1면 ‘3일 처리 vs 3% 룰...’서 계속

국민의힘이 수용하기 어려운 건 이른바 ‘3%룰’이다. 이 내용으로 실행될 경우 대주주의 영향력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도 3%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조항을 넣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야4당과 노동·시민사회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3%룰 강화’ 등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상법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3%룰’을 제외하고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사 총실행무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면 주주들

의 무분별한 손해배상·배임죄 소송과 외국계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재계의 요구를 수용해, 배임죄 개정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배임죄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기업 총수가 배임죄로 기소됐더라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결론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장관 대행(법무부 차관)에게 “미국 텔라웨어 주에서 소주주 친화적인 판결을 하니, 텔라웨어에 있던 기업들이 다 떠났다. 이를 ‘텔라웨어 엑시트’라더라”고 지적했다. /서예진 기자 syj@

단계별 영·중문 표준 안내장 마련
외국인 보험계약자 편의성 제고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에
영·중문 페이지 신설하기로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업권과의 협의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권한이 확인된 후견인에 대해 현금·체크카드 발급과 ATM 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후견인이 단순 입출금이나 계좌 조회, 이체 등을 위해 매번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외국인을 위한 보험 서비스도 강화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4년 기준 265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보험 계약 체결 건수도 2021년 74만건에서 2024년 114만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보험 계약 과정에서 외국어 안내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이해 부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9월까지 보험모집, 계약 유지, 보험금 청구 등 단계별로 영문·중문 표준 안내장을 마련해 외국인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안내장은 보험 계약 모집 시, 계약관리 안내 시, 사고보험금 접수 시 기존 설명자료와 함께 활용된다.

또 비대면 환경에서 외국인이 보험계약을 조회하거나 본인 인증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에 영문·중문 페이지를 신설하고 보험사 시스템의 영문 설명 입력 가능 글자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대리하는 후견인의 금융거래 불편 해소와, 언어 장벽을 느끼는 외국인의 보험 이용 편의 제고가 동시에 필요하다”며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유관기관 및 업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부동산 PF 구조조정 성과… 3개월만에 익스포저 11.5조 ↓

〈위험노출액〉

금융위 ‘부동산 PF 점검회의’

지난 3월말 위험노출액 190.8조
지방·중소 건설사 등 양극화 심화
연말까지 금융규제 완화조치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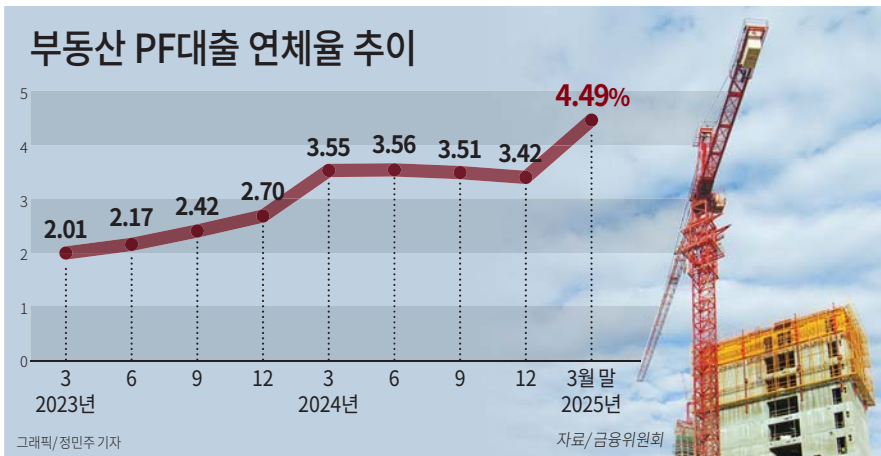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이 3개월 만에 11조5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비주택·2금융권·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양극화가 심화돼 이들을 중심으로 6월 종료되는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조치는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부동산PF 상황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말 PF 위험노출액(PF대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등)은 190조8000억원으로 전분기와 비교해 11조5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신규PF 취급액도 11조2000억원으로 같은기간 6조원 가량 줄었다. 단, 1년 전과 비교하면 2조2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PF 취급액보다 사업 원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



드는 위험 노출액이 더 많아졌다”며 “1년 전과 비교하면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이 지속 공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PF 연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 3월말 기준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4.49%로 전분기와 비교해 1.07%포인트(p) 상승했다. PF 연체율은 지난해 ▲3월말 3.55% ▲6월말 3.56% ▲9월말 3.51% ▲12월말 3.42%로, 지난해 3%대에서 올해 4%대로 상승했다.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등 중소 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도 28.05%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PF와 중소 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 잔액이 감소하면서 연체액이 증가해 연체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유의·부실 사업장 52.7% 재구조화
금융위는 3월말 기준 사업성 평가를 완료 한 결과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21조9000억원으로 전체 PF 위험 노출액의 11.5% 수준이라고 밝혔다. 신규 연체 등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12월 말(19조2000억원)과 비교해 2조7000억원 증가했다.

유의·부실우려 여신이 증가하면서 PF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금융기관의 대출 중에

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지난해 말 10.33%에서 올해 3월말 12.33%로 2%p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우려 여신이 증가하면서 금융기관의 총당금 규모도 늘었다”면서도 “사업성 평가의 영향으로 최소 규제 비율을 하회한 금융사는 없다”고 말했다.

3월 말까지 정리 재구조화 된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은 총 38.1%로 9조1000억원이다. 경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6조5000억원을 정리하고, 신규 자금 공급과 자금 구조 개편 등을 통해 2조6000억원 재구조화를 실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보공개 플랫폼을 활용해 시장 내 자율매각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며 “올해 상반기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의 52.7%인 총 12조6000억원을 정리·재구조화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 연말까지 연장

이날 민간전문가들은 “1년 간의 부실 PF 정리 노력으로 올해 6월 말까지 총 부실 PF의 절반가량이 정리·재구조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동산 PF 시장의 급격한 충격 우려는 일부 해소됐

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역별(수도권·지방), 용도별(주택·비주택) 온도차가 심화하고, 중소형 건설사의 유동성 애로가 지속되는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간전문가는 “사업성이 양호한 수도권 사업장은 금융기관의 경쟁적 참여로 금리경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방사업장은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금융권에 미칠 영향을 감안할 때 충분한 의견수렴과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제2차 추경안에 포함된 총 5조4000억원의 부동산 PF 유동성을 브릿지론, 중소건설사, 지방 등의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쓸 예정이다. 또 비주택 사업자보증(4조원, 건설공제조합) 신설을 위한 법령개정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며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산업계 상반기 성적표

반도체업계, 분기 실적전망 ‘온도차’

SK하이닉스 매출·영업이익 신기록 기대 삼성전자 영업이익 6.2조~6.8조 전망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2025년 2분기 실적 전망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SK하이닉스는 HBM(고대역폭메모리) 시장 주도권과 신제품 효과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반면, 삼성전자는 HBM사업 부진과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적자 등으로 시장 기대에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의 2분기 매출을 20조9300억원, 영업이익을 9조2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증권가 평균 전망치(컨센서스)인 매출 20조3000억원, 영업이익 8조8000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4분기 기록한 종전 최대 영업이익(8조828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SK하이닉스의 실적 호조 배경에는 HBM3E 5세대 12단 제품의 본격적인 출하가 있다. 이 제품은 기존 8단 대비 50~60%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2분기 전체 HBM3E 출하량 중 절반 이상이 12단 제품으로 채워진 것으로 파악된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 점유율 약 70%를 기록하며 독보적인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

HBM 외에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증가, 미국발 관세 우려에 따른 선구매 확대, 구형 D램 가격 상승 등이 실적 개선에 기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반면 삼성전자는 7월 초 발표 예정인 2분기 잠정 실적에서 매출 약 76조6000억원, 영업이익 6조2000억~6조8000억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애플엔가이드 기준 컨센서스는 매출 76조6447억원, 영업이익 6조816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5%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34.7% 줄어든 수치다.

증권가에서는 실제 실적이 이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5조원대 중후반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 컨센서스 대비 26% 하회하는 수준이다. 매출 역시 72조9000억원으로 예상돼 기존 전망보다 2조원 이상 낮다.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은 HBM3E의 출하 지연과 파운드리 사업 적자다. 삼성전자는 12단 HBM 제품의 엔비디아 공급이 늦어졌고, 주요 고객사 인증도 늦어지면서 출하량 확보에 실패했다. 파운드리 사업은 수년째 적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2분기에도 1분기 수준의 적자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혜민 기자 hyem@

완성차업계, 내수중심 판매 회복세

고율 관세·경기 침체에도 선전 이어가 현대차 지난달 총 35만8891대 판매

국내 완성차 업계가 미국의 고율 관세와 내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선전을 이어갔다. 내수 시장은 정부의 개세 연장과 신차 효과로 판매 회복세에 들어갔으며 해외 시장은 본격적인 관세 여파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국내 6만2064대, 해외 29만6827대 등 총 35만8891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6월과 비교해 국내 판매는 3.8%, 해외 판매는 1.0% 각각 늘었다.

6월 국내 판매 증가는 세단과 레저용차(RV)의 인기 모델들이 이끌었다. 세단은 그랜저 5579대, 쏘나타 4216대, 아반떼 7485대 등 1만7954대가 팔렸다. RV 중에서는 팰리세이드 5471대, 싼타페 5443대, 투싼 4453대, 코나 2958대, 캐스퍼 1205대 등 2만2922대로 집계됐다.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는 G80 3544대, GV80 2954대, GV70 3002대 등 1만454대의 판매고를 올렸다.

기아는 지난달 전 세계 시장에서 총 26만9652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월 대비 0.2% 증가

한 수치를 기록했다. 지역별 판매는 국내 4만6003대, 해외 22만2997대다. 1년 전과 비교해 국내는 4.5% 늘었고, 해외는 0.8% 줄었다. 차종별 판매 실적은 스포티지가 4만7492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고, 셀토스(2만7665대)와 쏘렌토(1만9758대)가 그 뒤를 이었다.

국내의 경우 승용이 1만1925대, SUV 등 레저용 차량(RV)이 3만1133대 팔렸다.

KGM은 지난달 총 9231대 판매하며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다.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18% 늘었지만, 내수가 26.1%가량 감소했다. 내수 시장의 경우 액티언 하이브리드 출시 대기 수요에 따른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지난달 총 8568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대비 4.8%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르노코리아는 내수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내수 판매는 전년 대비 145.6% 증가한 5013대를 기록했다. 특히 그랑 쿨레오스가 4098대 판매되며 82% 가까운 점유율을 보였다. 르노코리아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8.9% 감소한 3555대로 집계됐다.

한국GM은 지난달 총 4만51265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한 것으로 내수와 수출 모두 동반 부진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10나노급 6세대 D램 양산 초읽기

업계 최초 1c 공정 HBM 도입 계획

삼성전자가 차세대 D램 생산을 위한 10나노급 6세대(1c) 공정 양산에 성큼 다가섰다. 고난도 공정 경쟁에서 한발 늦었다는 평가를 받아온 삼성전자가 내

부 승인을 마치며 반전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1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차세대 D램 공정인 1c의 생산 준비 승인(PRA)을 완료했다. PRA는 실제 양산에 앞서 수율과 신뢰성

등 내부 핵심 성과지표(KPI)를 충족했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다.

1c는 10나노급 평면(2D) D램 공정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단계로 꼽힌다. 회로 폭이 약 11나노미터(nm) 수준으로, 더 이상 평면 구조로는 미세화가 어려운 기술 한계선이다. 각 기업의 기술력이 집약되는 분야로, 업계에선 이 공정이 ‘초미세 D램 전쟁터’가 될 것으로

본다.

삼성전자는 1c 공정을 통해 고성능 서버용 DDR5, 모바일·인공지능(AI)용 LPDDR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향후 글로벌 고객사와의 협력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되는 건 1c 공정을 활용한 고대역폭메모리(HBM) 전략이다. HBM은 여러 개의 D램 칩을 수직으로 쌓

아 만든 초고속메모리로, AI 반도체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다. 삼성은 업계 최초로 1c 공정을 HBM 제조에 도입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1c 공정은 단순한 공정 전환이 아니라 삼성의 D램 경쟁력 회복을 위한 분기점”이라며 “HBM 세대 전환기에서 코너 추월을 시도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예금보호 확대·中企 기준 완화… ‘가계·기업’ 숨통 틔운다

‘생활·경제·행정’ 대개편

하반기 중 예금보호한도가 기존의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났다. 또 네이버 앱 등 민간 앱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해진다. 수영장·헬스장 등의 시설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달라지는 제도·법규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35개 정부기관(부, 처, 청, 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16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소개됐다.

정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를 비롯해 신탁·농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의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1억 원으로 올린다.

가계대출 관리는 강화된다. 7월 1일부로 채무변제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에 들어갔다. 스트레스 금리를 1.5% 적용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상향한다.

스트레스 DSR 제도이란 대출 기간 중 변동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다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외 지방주담대에 대해서는 기존 0.75%가 올해 말까지 유지된다.

◆ 교육·국토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소득연계형(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지원)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연 최대 40만 원 인상한다. 대학교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올해 2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 양육비 선지급이 7월 1일부로 도입됐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 원을 선지급하는 제도이다.

행정 편의의 사항으로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사용 범위가 확대된다.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사용에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 등 민간 앱을 확대해 사용자 편의성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정부24와 삼성월렛 2가지 선택에서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으로 민간 앱을 통한 발급이 허용된다.

아울러 체육시설 이용 부담 완화가 시작됐다.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 및 체육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공제율 30%)를 받는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 지원되는 통합문

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

(금융·재정·세제) -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 → 1억원 -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변동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가능성 감안해 일정 수준(3단계:1.5% 적용) 가산금리 부과
(문화·체육·관광) -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30%) 시행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국토·교통) -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임대의무기간이 6년으로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주택 도입 - 교통약자 편의 개선 위해 신행 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 도입 - 낮은 화면기능, 보증금 환급기능 통합, 1회권 신용카드 결제 가능 등
(교육·가족)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비양육자에게 회수)
(보건·복지·고용) - 아동 입양절차 민간 → 국가·지자체가 수행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

자료: 기획재정부

/뉴시스 그래픽

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1만 원 인상(연간 13만원→14만원)됐다. 이는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과 관련된 전국의 3만 2000여 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 부문은 ‘단기 등록임대주택’이 골자다.

예금·장학금 ‘생활직격’ 혜택 강화 예금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조정 DSR 강화… 신용공급 관리 지속 모바일 신분증 발급 민간앱 확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 의무기간이 6년으로 완화(기존 10년 이상 장기유형만 등록 가능)된다. 연립 및 다세대 등 아파트 외 주택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 대상으로 이미 지난 6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월세에 이용자, 저소득자 등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 신행 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하반기 중 도입된다.

◆ 농림·환경

농림·수산·식품 분야 변경사항도 담겼다.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가 허용되고 근로자 숙소 범위도 확대된다. 또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관광농원 등의 설치 면적제한도 완화된다. 이는 지난 6월 2일부터 이미 시작됐다. 또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의 예외가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요건이 완화됐다.

이달부터는 신규로 고용되는 홀서빙 담당 외국인 근로자도 음식점업 고용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영세 음식점을 위한 조처다. 오는 12월에는

푸드테크 산업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을 명확히해 지원을 돕는 푸드테크산업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아울러 주로 냉동·건어물만 판매했던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하반기부터는 활·신선수산물도 구매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중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정보 제공 범위를 넓힌다. 기존에는 223개 지점의 홍수경보와 37개 댐 방류 정보만 제공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전국 하천 수위관측소 933곳에서 하천 위험 단계가 ‘심각’에 이르면 정보를 알린다.

9월 26일부터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대상자가 연간 1만t 이상 페트 생산자에서 연간 5000t 이상 먹는샘물 및 음료류 페트병 생산자로 바뀐다. 재생원료 사용 비중은 2026년 10%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에는 30%까지 높인다.

농림·환경, 산업·국방 전방위 개편 농지 이용완화·재생플라스틱 의무 단통법 폐지·中企 기준도 현실화 병역가산점 축소, 병적관리 강화

8월 7일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영업허가 제도도 달라진다. 일률적으로 4년에 한 번씩 영업허가를 받던 검사 주기가 취급량과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된다. 향후 유해물질 소규모 취급시설은 영업신고만 받기 4년마다 검사를 받는다. 소규모 시설 외에는 정기검사 주기가 1~3년으로 바뀐다.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야생동물 관리가 강화된다. 20개체 이상의 동물을 보유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을 판매하거나, 월 평균 10개체 이상 동물을 판매하

는 경우에는 12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산업·국방

이달 22일부터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동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공시 지원금의 15% 이내) 등의 규제가 없어진다.

올해 말부터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매출 범위 기준이 상향된다. 기존에는 연간 매출이 최대 1500억 원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줬으나 기업 성장 사다리 축진을 위해 앞으로는 1800억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종별로 다르게 설정된 매출 구간도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리고,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 매출상한도 현행에서 200억~3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연간 매출 기준을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상향하고, 매출 구간을 5개에서 9개로 늘린다. 소기업 매출상한도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에서 현행보다 5억~20억 원으로 올린다. 이렇게 되면 전체 중소기업 804만곳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약 573만곳(중기업 6만 3000곳, 소기업 566만 7000곳)이 세제 감면 및 공공조달, 정부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7월 22일부터

국가 핵심 기술 보

호·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도 시행된다. 기업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국가 핵심 기술 판정을 신청토록 하는 제도와 핵심기술 보유 기관에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시 벌금을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하고 해외유출 브로커도 기술 침해행위로 처벌토록 한다.

국방·병무 부문에서 오는 10월 접수하는 기술병·어학병·카투사·취업맞춤특기병 등 모집병(2026년 1월 입영자)부터 무도단증을 제외한 국가비공인 민간자격증이 가산점 항목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비공인 기관이 발급한 컴퓨터프로그램·한자능력검정·기업회계 자격증 등으로는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 인정되는 가산점도 ‘최대 15점’에서 ‘최대 10점’으로 줄어든다.

9월부터 고위공직자 자녀나 연예인 등 병적 별도관리대상에 대한 관리기간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즉시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3년 동안 면제 판정을 받은 원인이 된 질병의 치료 여부를 추적 관찰하게 된다.

7월부터는 입대 전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현역·보충역 등 병역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검사)와 함께 신체검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입대 전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대 후 각 군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따로 받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SK하이닉스가 만드는 AI 시대의 길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로
AI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 갑니다

Full Stack AI Memory Provider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李 대통령, 국무위원에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 존중해야”

李 대통령, 하반기 첫 국무회의 주재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상임위 불출석 국무위원 태도 지적
국민주권정부답게 존중 필요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의 의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을 향해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 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대통령실에서 하반기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령안 18건과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들에는 정부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종 공공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른 것으로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 범위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이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의 국회 내 태도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로, 그 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발현된다”면서 “그리고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

령, 국회의원 또는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이렇게 구성이 된다”며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니,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한 전 정권 국무위원들이나, 국회 내 태도 논란을 불러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나 대선 후보 시절에도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부터 후보 시절까지 일관되게 말한 것은 선출 권력은 국민의 선택이며, 임명 권력이 존중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강조했다”며 “가령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내지는 상임위 출석 있었을 때 (국무위원들이) 출석을 가버려 어긴 다거나 하는 부분에서, 임명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내각의 일원들이 선출 권력의 요청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최근 많은 상임위가 열려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질문이 있을 때 전반적인 태도에 대한 것으로, 국민주권정부라는 별칭을 가진 정부답게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당부) 말씀”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새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했다”며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주식이) 대체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여름철 장마와 폭염에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여름 폭서가 도래하면 쪽방이니 노인 취약계층도 위기를 겪는다. 각별히 관심 갖도록 잘 관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에는 장마철을 맞아 우수관과 배수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사항 이행 여부와 앰블런스 관리 상황을 점검하면서 “관리를 안 해서 재난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국방부에는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고,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예방시스템 구축 지시의 이행 여부를 물으며 국방부와 협력해 산불 발생 시 국방부 헬기도 산불 진압에 동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 당부했다. 해양수산부에는 내수면 관리 실태와 지자체별 수산 연구에 대해 묻고, 낚시 인구 1000만명 시대에 걸맞은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범지구적 해양 쓰레기 제거 사업에 대한민국이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과 규모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 지시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예결위서 ‘채무조정패키지 사업’ 입장 갈려

與 “경제리스크 사전방지” vs 野 “성실 채무자 역차별”

與 “빚 갚을 수 없는 극한 상황 선별”
野 “‘빚 안 갚아도 된다’ 생각 일반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이틀째 열린 가운데, 추경안 중 취약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채무조정패키지 사업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채무 조정의 대상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으로 정부가 4000억원을 들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해 채무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프

로그램을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이 소각되거나 채무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을 저소득 소액 차주로 확대한다. 총 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연체 차주도 90%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대상 기간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이었던 것을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예결위 이틀차 종합정책질의에서 “국제결제은행(BIS)이 영세 자영업자 부채증가와 국내

가계부채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400조원이 빠르게 부실화되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빚 부담 있는 자영업자가 무더기 도산하면 금융리스크가 생긴다. 이게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주사 차원에서도 취약계층 부채를 정리하면 한국경제의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나간다고 예방주사를 맞는 것을 포기해서 되겠냐”라고 반문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두 가지가 중요하다.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최근 5년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아졌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매출 회복과 채무 조정 두

가지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매출 회복과 관련돼 있고,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 가지가 채무 부담 완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채무 조정 패키지에 대해 “돈을 안 갚고 버티는 사람의 빚을 나라가 대신 갚아줄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나”라고 임 차관에게 반문했다. 임 차관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파산 상태가 돼서 상환할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채무 조정 패키지는 성실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 게임의 룰을 바꿨다”,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생각이 일반화되고 있다’ 등 국민 반응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어려운 과정에서 성실하게 빚을 상환하신 분들에게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며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도저도 안 되게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극한 상황을 선별해 재산, 능력을 심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7년 이상 추심의 고통을 겪고 경제적으로 생활을 못하는 고통을 겪은 분들”이라고 부연했다.

임 의원은 “기준이 의심스럽다. 1인가구로 하면 중위소득 60% 이하가 대상인데, 143만원 정도다. 이는 최저임금으로 아르바이트만 해도 벌 수 있는 돈”이라며 “성실하게 일해서 본업과 파트타임으로 빚 갚는 사람은 정책에서 제외되는데 그들의 불평과 상실감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묻자 권 사무처장은 “그런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 두고 볼 수 없어서 최소한의 기준을 갖고 도덕적 해이, 성실 상환자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李 대통령, 내일 비교섭단체 野5당 지도부와 오찬

의제 제한없이 자유롭게 진행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야권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을 갖는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남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의제에 제한은 없을 예정이라고 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일 용산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 간 오찬 만남이 7월3일 (오후) 12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찬 참석자는 조국혁신당에서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에서 김재연 당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에서 천하람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에서 용혜인 당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에서 한창민 당대표 겸 원내대표 등이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수석이 함께한다.

우수석은 “이날 모임은 지난번 교섭단체 당 지도부들과의 만남에 이어 다른 분들과의 대화 폭을 넓히려는 취지고,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진행된다”며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외교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야당의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선 비교섭단체 지도부들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우수석은 “이 문제는 지난번 제가 정무수석이 된 이후 (각 당 지도부를) 예방했을 때도 몇몇 정당이 의견을 냈다”며 “이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 대통령실의 관여가 어렵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등 요구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용산대통령실 앞에 모여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 철회·법사위원장 양도·사법부 독립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김민석이어야만 합니까”라고 적힌 현수막 뒤에 서서 “국민들은 분노한다. 김민석을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9일 전

이곳 관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을 가졌다”며 “저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정중하게 요청한 바 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그때 대통령은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라고 했다. 대통령께 묻는다. 청문회를 잘 지켜보셨나”라며 “1년에 두어 번 수확하는 날에 수익이 들어오는 배추 농사에 투자를 해서 매달 450만 원씩 받았다는 해명, 피약별 아래 땀 흘리는 농민들을 우롱하는 이런 사람, 국무총리 자격 있나”라고 반문했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매달 다른 매출과 복잡한 세금, 잘 관리하고 있는 걸까?"

"정산부터 가게 관리까지 한 번에 도움받을 순 없을까?"

"우리 가게에 꼭 맞는 정책자금, 누가 좀 알려줬으면..."

HANA THE SOHO

하나더소호

개인사업금융의 든든한 파트너

소호 사장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할 하나뿐인 솔루션



맞춤 금융



경영 지원



간편 금융

| 명동 '곰국시집' 유미화 사장님 | 곰국수 하나로 한국의 맛과 전통을 지켜온 곰국시집, 20년간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저금리·고물가 시대… 예금 대신 연금저축·ISA 주목

예금금리, 물가상승률 밀돌아
연금저축·IRP 절세효과 주목
ISA 비과세 혜택 활용도 늘어
저성장 기조에 수요 지속 전망

계속된 예금 금리 하락에 정기예금 이자가 물가상승률보다 낮아져 자산가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오히려 재산이 줄어 드는 상황 이어서다. 저금리·고물가 기조에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연금저축·종합자산관리계좌(ISA)·개인형 IRP(퇴직연금)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이 취급하는 38개 정기예금(1년 기준)의 최고금리 평균은 연 2.57%다. 전월 취급금리 평균인 2.59%보다 낮아졌

다.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해도 지난달보다 낮은 이자를 받게 된다.

같은 기간 우대금리를 제외한 기본금리는 2.27%까지 내렸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까지 내리면서, 예금 금리가 함께 하락한 영향이다.

금리 내림세에 금융소득 과세율(15.4%)을 고려한 실질 금리는 1%대로 하락했다. 과세율을 적용한 정기예금의 금리 평균은 최고금리 적용 시 2.17%, 기본금리 적용 시 1.92%다.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한 금리는 한은이 발표한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5월 말 기준)인 2.1%보다도 낮다.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도 미래의 구매력이 오히려 낮아지는 셈이다.

물가상승률이 예금 금리를 앞지르면서 연금저축·개인형 IRP(개인형 퇴직

연금)·ISA(자산관리계좌) 등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는 금융 상품도 중요해졌다. 특히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누진 과세가 적용되는 만큼, 대규모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자산가일수록 절세가 중요하다. 세 상품을 함께 활용하면 연 최대 1100만원 이상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했다면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적립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간 최대 6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납입액은 실적배당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선택해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중도 해지나 일시 지급 시엔 소득세가 발생하는 만큼, 가입 시 유동성에 유의해야 한다.

개인형 IRP는 의무가입 대상인 DC

형·DB형와는 달리 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이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예금·국채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 선택도 가능해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다. 다만 개인형 IRP는 주식 등 위험자산의 비중이 70%를 넘길 수 없고,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일시 지급이나 중도 해지 시엔 소득세가 발생한다.

ISA는 예금·펀드·ELS 등 각종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이다. 퇴직연금 운용기관이 판매 중인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형 IRP와 달리, 펀드, ETF, 주가연계증권(ELS), 리츠(REITs) 등에도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다.

ISA는 연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연 200만원(연 소득 5000만원 이내 라면 400만원) 이내의 순이익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ISA는 가입 시 5년의 의무 가입 기간이 적용되며, ISA를 통한 비과세 혜택은 연금저축·개인형 IRP의 한도와는 별도로 계산된다.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기준금리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의 중요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조달금리에 해당하는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예금 금리도 함께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기준금리가 더 낮아진다면 예금 금리도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펫보험 가입률 13%… ‘표준수가제’ 돌파구 될까

보험사 틈새상품에 정부 정책 시동
시장 판도 ‘분위기 반전’ 시험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문화가 일상으로 스며들었지만 보험 시장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 보험사들의 창의적 상품과 정부의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추진이 맞물리면서 반려동물보험(펫보험)판이 바뀔지 이목이 쏠린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반려가구는 591만 가구, 반려인은 1546만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 30%에 달한다. 반려견(546만 마리)과 반려묘(217만 마리)만 합쳐도 760만 마리가 넘지만 펫보험 가입률은 12.8%에 그친다. 이용의향은 높는데 실제 가입이 저조한 ‘통계 미스매치’다.

격차의 첫 번째 병목은 비용이다.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월평



Chat GPT가 생성한 반려동물보험 이미지.

균 양육비는 19만4000원, 최근 2년 치료비 지출은 평균 146만30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보험 비가입 가구의 50.6%가 ‘월 보험료 부담’을, 35.8%가 ‘보장범위 협소’를 이유로 꼽는다.

황원경 KB경영연구소 부장은 “반려가구 91.7%는 ‘반려동물보험’에 대해 알고 있으나 실제 가입한 가구는 12.8%에 불과했다”며 “반려동물보험 가입을 주저하게 하는 저해 요인 1위는 ‘월 납입 보험료 부담’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가격·보장’ 틈새를 파고 들고 있다. DB손해보험은 올해 초 ▲반려견 무계별 보장한도 차등화 ▲보호자 상급병원 통원 시 위탁비 실손 담보 등 두 가지 신위험 담보로 손보업계 첫 6개월 베타적사용권을 따냈다. 메리츠화재도 ‘유병력 간편심사형’ 상품을 선보여 기존 질환이 있는 반려동물의 가입길을 열었다.

시장 구조에도 변화가 닥친다. 국내 1호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마이브라운’이 금융위원회 본허가를 받고 7월 중 영업을 앞뒀다. 전용 인프라·EMR(전자차트) 기반 자동심사 시스템을 내세운 ‘메기’의 등장이 손해를 예측과 청구 간소화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정책 드라이브도 속도를 낸다. 이재명정부는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표준 수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표준수가제는 동물병원에서 시행되는 각종 진료 항목에 대해 일관된 가

격을 책정해 치료비 차이를 줄이고 가격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다만 과제도 산적하다. 가입자 불만 1·2위가 여전히 ‘보장범위·보험료’다. 앞선 ‘반려동물 보고서’에서 반려가구 46.1%가 시장 활성화 최우선 과제로 수가제를 꼽았으나 동물병원·수의계 반발이란 현실적 난관이 남아 있다. 전문 보험사 등장 역시 ‘소액단기보험’ 한계를 넘어 장기·대형사와의 공존 모델을 증명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정부·의료·보험’ 삼자 협의가 본 궤도에 오르면 적정 프리미엄 산정 근거가 마련돼 보험료와 보장불신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진료 항목 표준화가 도입되면 보험료 상승 요인을 줄이고 다양한 특약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진료비 투명화가 펫보험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포스코이앤씨가 태국 걸프 디벨로프먼트사에서 ‘Gulf MTP LNG 터미널’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사랏 라타나바디 걸프 디벨로프먼트 사장,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 /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이앤씨

태국 LNG 터미널

1.5조 규모 공사 수주

포스코이앤씨는 태국에서 1조5000억원 규모의 ‘걸프(Gulf) MTP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태국 방콕에서 태국 걸프 디벨로프먼트와 25만m³ 용량의 LNG 탱크 2기와 하역설비, 연 800만톤의 기화 송출 설비를 건설하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태국 방콕에서 130km 떨어진 마타푸트 산업단지에 건설되는 Gulf MTP LNG 터미널은 태국 굴지의 에너지 부문 민간 투자사인 걸프 디벨로프먼트와 태국 최대 국영 에너지기업인 PTT의 자회사인 피티티 탱크 터미널이 공동 발주한 태국 최초의 민간 합작 LNG 터미널 건설 사업이다.

이번 사업 수주는 포스코이앤씨가 국내 광양·제주 애월·삼척 LNG 터미널과 태국 PTT·파나마 콜론 LNG 터미널 등 국내외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실적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 중국, 레바논 등 3개의 글로벌 기업들과의 치열한 수주 경쟁 끝에 얻은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포스코는 2010년부터 LNG 터미널 사업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LNG 탱크, 부두 시설, 기화 송출 설비 등 다수의 LNG 터미널 사업을 수행해 국내 유일의 자력 설계 기술을 갖춘 설계·조달·시공(EPC) 기업이라는 점도 높게 평가 받았다. /전지원 기자 jiw13@

대우건설, 투르크메니스탄 고위급 연쇄 접촉

“신규 가스전·석화 등 사업협력 앞장”

정원주 회장, 최고지도자 등 예방
현지 경제발전 사업 참여의사 전해

대우건설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정원주 회장이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국가최고지도자, 대통령, 각 부처 부총리 등 고위급 인사를 예방하고 현지 사업 확대와 협력 강화를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8일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쉬하바트에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 및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을 잇달아 예방한 정 회장은 “지난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 비료공장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

드리며 성공적인 수행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우건설은 모든 건설 분야에서 글로벌 실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계획하고 있는 신규 가스전 개발 사업 및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을 비롯해 철도, 지하철, 초고층 빌딩 등 다양한 사업 참여를 통해 경제발전과 양국간 협력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전날인 27일에는 바이무랏 안나맘메도브 건설·전력·생산담당 부총리와 만나 국영화학공사가 추진하는 신규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에 대한 참여기회를 준 점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에서의 참여기회를 희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오른쪽)이 지난달 28일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을 예방하고 있다. /대우건설

망한다고 전했다.

바이무랏 안나맘메도브 부총리는 “지난번 한국을 방문했을 때 대우건설이 시공한 석유화학 플랜트, 해저 침매터널 및 폐기물 매립장 등을 실제로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 외에도 자원 재활용, 매립가스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우건설이 참여해주시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29일에는 바티르 아마노브 석유·가스담당 부총리 및 막샷 바바예프 국영 가스공사 회장과 만나 신규 가스전 개

발사업에 대한 대우건설의 참여 의사를 밝히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 받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투르크메니스탄은 당사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략 시장 중 하나로 신규 시장 개척에 성공한 이후 사업 다각화 및 신속한 현지화를 통해 안정적인 기반을 다질 예정”이라며 “최고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네트워크 강화 노력을 토대로 향후 주요 해외 전략 거점으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초저금리에 최대 490만원 혜택 완성차, 휴가철 프로모션 선보여

현대차 한달간 2.9% 저금리 적용
코나·투싼 등 SUV 썸머 페스티벌

르노코리아 옵션·액세서리 지원
QM6 310만원, SM6 490만원 혜택

국내 완성차 업체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에 맞춰 초저금리 혜택부터 전 차종 구매 고객 대상 액세서리 쿠폰 등을 제공하는 등 침체된 내수 시장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7월 한달 간 2.9%의 초저금리 프로모션을 적용하는 ‘SUV SUMMER 페스티벌’을 실시한다. 대상 차종은 ▲코나 ▲투싼 ▲싼타페 ▲GV70 ▲GV80 등 하이브리드 차종을 포함한 총 8개 차종으로 ▲코나 ▲GV70 ▲GV80은 기존 금리 4.5%에서 1.6%p, ▲투싼 ▲싼타페는 기존 금리 4.0%에서 1.1%p를 낮췄다. 이는 60개월 할부 기준이다.

이번 프로모션 기간 내 차량 금액의 1%를 선수금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전체 금액을 60개월 할부로 진행하면 코나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1.6터보 모던 모델은 102만 8400원 절약할 수 있다. 투싼 모던 모델은 총 납입료를 79만 7900원 아낄 수 있으며 쏘타페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총 납입료 102만 1000원 절약할 수 있다.

제네시스 인기 모델인 ▲GV70 가솔린 2.5터보 ▲GV80 가솔린 2.5터보는



현대차 ‘SUV SUMMER 페스티벌’.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주행 모습.

각각 226만1800원, 292만 100원 절약된다.

르노코리아는 신차 구매시 옵션·액세서리·연장보증 중 구매 지원(아르카나/SM6/QM6 50만 원 및 그랑 콜레오스 30만 원 상당) 또는 엔진오일 3회 교환 쿠폰 무상 제공 중 고객 선택 혜택을 제공한다.

또 스마트 유에 및 잔가보장 할부 상품도 지난달보다 더욱 낮아졌다.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 E-Tech 인텐스

트립의 경우 잔가보장 할부를 통해 월 32만원에 구매 가능하다(선수율 20% 및 36개월 기준). 3%대 정액불 상품도 할부원금 2500만원 이하 최대 36개월 3.3%와 할부원금 2000만원 이하 최대 60개월 3.9%로 더욱 다양해 졌다. 단 테크노 트립은 일부 혜택 적용이 제한된다.

쿠페형 SUV 아르카나는 제휴 상품을 통해 24개월(할부원금 2000만원 이하) 또는 36개월(할부원금 1500만원 이하)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거나, 50만원의 특별 혜택과 함께 정액불 및 잔가보장 할부 상품을 이용할 수도 있다. 또 구매 지원 혜택과 특별 프로모션 등을 적용하면 최대 140만원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QM6는 제휴 할부로 무이자 할부 등을 적용하면 최대 310만원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SM6는 파워트레인별 혜택 등 총 490만원의 현금 혜택을 받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집단지성으로 유일의 가치 만들자”

HS효성그룹 창립 1주년 기념행사
조현상 부회장
“모두가 경영자… 역사 만들어가자”



회장의 지시로 HS효성 종합기술원(HARTI)을 출범시켰으며 과거 효성시절 대비 지난 1년간 연구인력을 30% 이상 늘렸다.

“우리가 이룬 1년은 단순한 기업 활동이 아니라 ‘창업’ 그 자체였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HS효성의 경영자이자 창업자이며 앞으로 더 큰 역사를 만들어가자.”

1일 HS효성에 따르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사진)은 지난 6월 30일 서울 마포 본사에서 열린 HS효성그룹 창립 1주년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부회장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며 HS효성의 ‘창업자’로서 함께 일군 대장정의 첫해를 축하했다.

조 부회장은 “AI 등 기술 혁명으로 앞으로는 ‘깊이’의 싸움이 치열할 것”이라며 “최근 강화된 R&D 활동을 통해 비전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과학, 기술, 지적 자산 그리고 우리 모두의 집단 지성으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치를 만들어 유일의 가치를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실제로 HS효성은 조 부

안성훈 HS효성 공동대표이사는 1주년 기념사에서 “경제불확실성지수가 IMF 시기보다도 2~3배 높은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노력은 그 자체로 우리 조직의 저력을 증명한 것”이라며 “우리는 못할 게 없다”고 당부했다. 이어 “HS효성은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과 가치로 경쟁하는 ‘강한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특히 폴리에스터타이어코드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며 글로벌 자동차 2대 중 1대에 사용될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는 HS효성이 보유한 전통적 기술 경쟁력의 단단한 기반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HS효성은 ‘가치 또 가치’라는 슬로건 아래 창립 1주년을 임직원과 그 가족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LG전자-로지스밸리 ‘스마트물류’ 진출

스마트팩토리 기술, 물류에 첫 적용
박스단위 포장작업 로봇이 자동 수행

LG전자가 자율주행로봇, 디지털 트윈 등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앞세워 스마트물류 솔루션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LG전자는 최근 경기도 평택 LG디지털파크에서 국내 최대 복합 물류기업 로지스밸리와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로지스밸리는 물류센터 개발 및 임대, 물류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전 세계에 직영 물류센터 50여곳을 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은 LG전자가 제조 현장에서 축적한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물류 분야에 처음 적용하는 사례다. 양사는 로봇 자동화, AI 기반 물류 최적화 기

술을 활용해 고객 맞춤형 스마트물류 센터를 공동 구축할 계획이다.

LG전자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은 자율주행로봇, 디지털 트윈, 비전 AI,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구성된다. 이 기술이 물류센터에 적용되면 박스 단위 포장이나 물동 분류 작업을 로봇이 자동 수행하고, 비전 AI가 포장 오류를 줄이며 전체 공정을 최적화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면 가상 공간에 물류센터를 구현해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물동 흐름을 예측하고 설계를 최적화할 수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강점이다.

양사는 로지스밸리의 신규물류센터뿐 아니라 LG전자의 자체 가전 물류센터에도 스마트물류 솔루션을 적용하고, 글로벌 고객 대상 공동 영업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이혜민 기자

LG AI연구원, 민간기업 대표 AI윤리 논의

‘AI 윤리 글로벌 포럼’ 2년연속 참가
‘AI 윤리 MOOC’ 진행 현황 공유도

LG AI연구원이 유네스코 주관 ‘AI 윤리 글로벌 포럼’에 2년 연속 참가하며, 인공지능(AI) 윤리와 국제 규범 논의에서 한국 민간 기업을 대표했다.

LG는 지난달 24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린 AI 윤리 글로벌 포럼에 LG AI연구원이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참석했다고 1일 밝혔다. 유네스코 194개 회원국과 12개 국제기구 인사 등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AI 기술의 책임 있는 활용과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김명신 LG AI연구원 정책수석은 ‘AI 시대,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마이크로소프트, SAP, 인포시스, 톰슨로이터재단 등과 함께 민간 부문의 책임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LG AI연구원은 이번 포럼에서 유네스코와 함께 추진 중인 글로벌 프로젝트인 ‘AI 윤리MOOC’ 진행 현황도 공유했다.

AI 윤리 MOOC은 전 세계 AI 전문가와 연구자, 정책 입안자를 대상으로 AI 기술을 올바르게 개발하고 활용하는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교육 프로그램



지난달 24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린 AI 윤리 글로벌 포럼에 LG AI연구원이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참석했다. 위 사진은 26일(현지시간) 포럼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김명신 LG AI연구원 정책수석이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위한 민간 부문의 협력에 관해 논의하는 모습. /LG그룹

램을 개발해 제공하는 등 공공 및 민간 분야의 AI 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이다. 하버드대, 뉴욕대, 노트르담대, 유엔대, 모질라 재단 등 주요 연구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LG AI연구원은 오는 5일 일본에서 열리는 ‘AI 안전성 워크숍’과 8일부터 스위스에서 열리는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주관 ‘AI 포커스 서밋’에도 연이어 참석하며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LG AI연구원과 유네스코는 내년 2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릴 예정인 ‘AI

임팩트 정상회의’에서 MOOC 프로젝트의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월에는 유엔 AI 자문위원이자 세계경제포럼 AI행동연합 공동의장인 빌라스 다르 패트릭 J. 맥거번 재단 대표가 방한해 LG AI연구원과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역시 올해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전에 없던 가치를 만드는 많은 순간들이 쌓여 지금의 LG가 됐다”며 차별적 미래가치를 위한 변화와 윤리적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혜민 기자 hyem@

현대자동차 ‘Car to Car 프로젝트’ 소개

‘2025 지속가능 보고서’ 발간

현대자동차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폐차의 재활용 등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담은 ‘2025 현대자동차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간했다.

1일 현대차에 따르면 지속가능경영 현황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재무 및 비재무 정보를 공개하고 투자기관·고객 등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펴냈다.

‘2025 현대차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크게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세 파트로 구성됐다. 환경파트에서는 ▲국내 사업장의 국내 최대 규모 전력구매계약

(PPA) 체결 ▲해외사업장의 재생에너지 도입 현황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 및 성과 현황을 담았다.

폐차의 재활용 소재를 신차에 적용하는 ‘Car to Car 프로젝트’ 등 차량 순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소개하며 기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사회파트에서는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ESG 관련 행동 규범을 제시하는 세계 최대의 산업 연합)와 ‘Drive Sustainability’(자동차 공급망의 사회적, 윤리적 및 환경적 성과의 개선을 위한 공급망 협의체) 신규 가입을 다뤘다.

/양성운 기자

HD현대건설기계·인프라코어 합병 2030년까지 글로벌 매출 15兆 목표

내년 초 ‘HD건설기계’ 법인 출범
‘현대·디벨론’ 2개 브랜드 체제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한 마중물”

HD현대건설기계와HD현대인프라코어가 합병을 통해 매출8조원 규모의 ‘HD건설기계’ (가칭)로 재탄생한다.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는 1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 간 합병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양사 합병은 HD현대인프라코어의 주주들에게 존속회사인 HD현대건설기계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 비율에 따라 HD현대인프라코어 보통주 1주당 HD현대건설기계 보통주 0.1621707주가 배정된다.

HD현대건설기계가 오는 9월 16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와 기업결합 심사 등의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면 양사는 내년 1월 1일 합병기일에 맞춰 HD건설기계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번 합병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업계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시장의 요구에 보다 기민하게 대처하고, 미래 기술력 및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합병법인인 HD건설기계는 건설기계브랜드인 ‘현대(HYUNDAI)’와 ‘디벨론(DEVELON)’의 2개 브랜드 체제로 운영된다.

아울러 주력 사업인 건설장비를 비롯해 엔진, 애프터마켓 등 사업 전 영역의 성장을 통해 오는 2030년 글로벌 최고 수준인 매출 14조8000억원 이상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번 합병으로 HD건설기계는 일원화된 의사결정 체계가 가능해져 경쟁력 강화와 성장 동력 확보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제품 라인업을 최적화하고 지역별로 생산체계를 전문화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동시에 콤팩트부터 초대형까지 아우르는 건설장비의 풀 라인업을 구축할 계획이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 조영철 사장은 “HD현대 건설기계 부문의 이번 합병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건설기계 산업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 글로벌 시장에서 위상을 공고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한화오션 차세대 쇄빙연구선 조감도

한화오션, 차세대 쇄빙연구선 만든다

해수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한화오션이 첨단 쇄빙선 건조 기술향을 앞세워 한국의 극지 탐험에 활용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건조한다.

한화오션은 1일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이달 중 본계약 체결 뒤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설계에 들어가며, 오는 2029년 12월까지 건조를 마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에 인도할 계획이다.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총 1만6560톤 규모로, 극지연구소가 현재 운용하는 국내 최초의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7507톤)의 2배가 넘는다. 액화천연가

스(LNG)이중연료 전기추진체계를 탑재해 1.5m 두께의 얼음을 깨고 나아갈 수 있는 양방향 쇄빙 능력을 가진 PC(Polar Class) 3급 성능을 갖췄다. 영하 45도의 내한 성능도 견비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아라온호와와는 차별화된 완전히 새로운 쇄빙 연구 플랫폼을 지향한다”며 “글로벌 톱티어 조선소인 한화오션의 핵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은 최근 산자부 정책과제인 ‘북극 고위도 연중 운항이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PC(Polar Class)2급 쇄빙선 개발’ 과제에 수주, 남북극 탐험을 향한 대한민국의 여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중기부,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 기업 ‘철퇴’

공정위에 현대케피코·교촌 고발 요청
“고질적인 불공정행위 엄중하게 조치”

현대케피코와 교촌에프앤비가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해 검찰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자동차 엔진 및 변속기용 부품 등을 제조하는 현대케피코는 현대자동차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교촌치킨’ 브랜드로 유명한 교촌에프앤비는 창업주인 권원강 회장이 대주주로, 69.2%를 보유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들 2개 기업은 오랜 기간 거래하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계약서 등을 지연발급하거나 불

완전하게 발급했고,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 유통마진도 일방적으로 줄여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현대케피코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8개 중소기업들(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13개 수급사업자, 총 98건의 계약에 대해 필수 기재 사항이 적힌 서면을 작업 시작일로부터 최대 960일이 지난 후에야 발급했다.

또 서면지연발급 건 중 일부인 86건과 그 외 12건을 포함한 총 98건에 대해 납품시기가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을 초과(최대 1360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약 2억 479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당시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의 계약을 체

결했는데 계약 기간 중인 같은해 5월에 캔당 1350원 수준인 전용유 공급 마진을 0원으로 일방적으로 내려 지난해 10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2억8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 고발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두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자동차 부품 제조시장의 고질적 거래문화로부터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월한 지위의 가맹본부로부터 중소기업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을 위반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중기부,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근거 마련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제도가 구체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시행하는 개정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소상공인 정책 자금 장기 분할 상환 관련 기준·방법 마련 ▲중기부 장관이 재난 지원 업무 시 소상공인에 대한 과세 정보 등 수집·활용이 핵심이다.

/김승호 기자

이번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범위·금액·방식을 명시했다. 소상공인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공공 요금 인상 정도, 소상공인 경영 부담 등을 고려해 책정될 예정이다.

중기부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전지원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향후 코로나19같은 재난 지원 시에도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車업체, ‘구독 서비스’ 드라이브… 부담 줄이고 혜택 더해

현대차 제네시스 구독 플랫폼 통합
기아 K9·EV6 등 라인업 확대
KGM 월 단위로 자유롭게 대여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초기 부담금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차량 구독 서비스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유럽을 비롯해 인도와 중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1위 업체에 따르면 KG 모빌리티(이하 KGM)는 차량 구독 서비스 ‘KGM 모빌링’을 론칭하고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에 나섰다. KGM 모빌링은 KGM의 차량을 월 단위로 자유



KGM MOBILING 구독서비스.

롭게 대여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다. 보험·세금·정비에 대한 부가 비용과 보증금·선수금 등 초기 부담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기존현대차와제네시스로 나뉘었던 구독 플랫폼을 통합, 하나의

플랫폼에서 현대차의 다양한 차종뿐 아니라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차종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선택 폭을 확대했다.

기아는 프리미엄 차량 구독 서비스 ‘기아 플렉스’를 통해 K9, EV6 등 고급 및 친환경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1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보험·정비·세차 서비스가 포함돼 있어 차량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차량을 소유에서 공유로 개념이 바뀌고 있다”며 초기 구매 비용과 유지·관리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어 구독 서비스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성운 기자

중견기업, 3분기 경기전망지수 ‘78’

美 관세 등 수출 악화 우려

3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특히 제조업 내수는 5분기 연속 하락했고 수출도 3분기가 전분기에 비해 더욱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25년 3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 78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분기와 비교하면 2.7포인트(p) 하락한 것이다. 1년 전에 비하면 7.2p 내렸다.

암울한전망은제조업에서 두드러졌다. 제조업은 전분기(82.6) 대비 5.7p 감소한 76.9로 집계됐다.

제조업 중에선 자동차(70.7, 6.1p ↓)와 기타 제조(67.9, 32.1p ↓) 등이 전 분기 대비 크게 하락하는 등 전망이

어두웠다. 다만 제조업 가운데 전자부품 업종이 107.7로 27.8p의 큰 폭 상승을 기록, 유일하게 ‘100’ 이상으로 기준선을 넘었다.

비제조업은 2분기 당시 78.8에서 3분기엔 79.2로 소폭(0.4p) 상승하며 그나마 선방했다. 비제조업 중에선 부동산(75.6, 11.9p ↑)과 운수(88.5, 10.5p ↑) 업종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내수는 2분기 76.7에서 3분기 78.1로 다소 호전을 예상하고 있지만 수출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미국 상호관세, 중동 정세 불안 등 오래 지속된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중견기업계의 부정적인 경기 체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NARA CELLAR

역시! 몬테스

결국! 몬테스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사명부터 기업 정체성·업무 방식까지 ‘AI 중심’으로 바꿨다

ITS 기업 상반기 결산

③ SK AX

올 상반기 SK C&C는 27년간 유지했던 사명을 내려놓고 ‘SK AX’로 새출발을 선언했다. SK AX는 이름만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 정체성부터 일하는 방식까지 전부 AI 중심으로 재편해, 이전과는 180도 다른 새로운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회사는 이번 사명 변경이 “단순한 리브랜딩이 아닌 기업의 존재 방식을 리셋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한다.

◆ ‘AI 디폴트 컴퍼니’로 변신

SK AX가 내세우는 새 비전의 핵심은 ‘AI 디폴트 컴퍼니(인공지능 우선 기업)’라는 개념이다. 단순히 AI 기술을 일부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운영과 업무의 출발점 자체를 AI에 두고 이를 전제로 모든 비즈니스와 시스템, 조직 문화를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SK AX는 고객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넘어 인공지능 전환을 실현하는 ‘AX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인간과 AI가 유기



윤봉영 SK AX 사장이 지난 5월12일 새로운 사명 의미와 성장 비전을 소개하고 있다. / SK AX

새 비전 핵심 ‘AI 디폴트 컴퍼니’ 인간-AI 유기적 협업 체계 목표

디지털 트윈 기술, 제조업 ‘주목’ 고성능 GPU 활용 AIDC 사업 추진

적으로 협업하는 ‘휴먼 위드 AI’ 체계를 정착시켜 업무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 현장서 쌓아올린 AI 전환 노하우 풍부

SK AX는 그간 국내외 다양한 기업들과 의미 있는 유즈 케이스(사용 사례)

를 축적해왔다. H유통사는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 마케팅 썸네일 이미지를 자동으로 만들어 즉시 캠페인에 활용함으로써 제작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했다.

L보험은 보험 판매 과정의 녹취 파일을 분석 및 모니터링해 불완전 판매로 인한 보험 계약 해지를 최소화했다. I계약사는 AI를 통해 규제가 까다로운 의약품 보고서 작성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인력 부담을 덜고 효율을 높였다.

SK AX의 기술은 제조업 분야에서

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제조업체 A사는 공정 최적화를 위해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해 생산 라인의 기계·부품을 3D 모델로 구현,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생산 조건을 찾고 장애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다.

배터리 O사는 딥러닝 기반의 엑스레이 이미지 분석을 통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내부 결함을 탐지해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고 수율을 높였다. 이러한 기술은 고도화된 공정 관리뿐 아니라 유지보수 계획에도 큰 도움을 주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도 SK AX의 AI 활용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K은행은 기업의 부도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재무정보뿐 아니라 언론 보도, 기업 평판, 산업 지표 등 외부 비정형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여신 심사에 반영해서 리스크 탐지 정확도를 높였다.

K증권은 AI가 시장 전망을 분석하고, 투자자별 성향에 맞춰 자산 배분과 자동 매매를 수행하는 ‘AI 기반 로보어드바이저’를 도입해 기존 고객 자산가

중심이던 투자 일임 서비스를 2030세대와 중장년층으로 확산시켰다.

◆ AI 중심 인프라 재편

SK AX가 강조하는 AI 혁신은 IT 인프라 재편과도 맞닿아 있다. 회사는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와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자원을 활용한 AI 전용 데이터센터(AIDC)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현재 SK AX는 AI 서비스에 적합한 자원 자동 관리, 실시간 시스템 모니터링, 에너지 절감 기술 등을 한층 발전시키고 있다. 단순히 클라우드만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 혁신을 실현할 산업별 맞춤형 인프라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SK AX가 데이터센터 자산 일부를 SK브로드밴드로 이관한 것도 물리적 인프라와 설계·운영을 분리해 각 계열사의 강점을 살리려는 그룹 전략의 일환이다.

한편, 올 1분기 SK AX의 매출액은 58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7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 증가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KT-NH농협은행, AI 기반 컨택센터 구축

총 400원 규모 구축 사업 ‘맞손’ 상호금융 고객 상담시스템 대상

KT는 NH농협은행과 ‘차세대 컨택센터 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총 400억 원 규모의 AI 기반 컨택센터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농협은행과 상호금융 고객 상담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며, KT가 14개월간 단독으로 수행한다. IPCC(인터넷 기반 통합 컨택센터) 시스템 통합과 AICC(AI 기반 컨택센터) 기술을 도입해 NH농협은행의 상담 인프라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KT는 AI 챗봇·챗봇, 상담 내용 요



KT Enterprise부문장 안창용 부사장(앞줄 왼쪽부터 네 번째)과 NH농협은행 박내춘 부행장(앞줄 왼쪽부터 다섯 번째)이 ‘차세대 컨택센터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에서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KT

약, 음성인식(STT)·합성(TTS), 상담 지원 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KMS) 등으로 구성된 상담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고객 응대 품질과 운영 효율 개선이 가

능하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은 AI가 단순문의를 응대하고, 복잡한 상담은 상담사에게 연결하는 이중 응대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LG U+, 지난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2개 스페셜 페이지 별도 구성 5가지 중요 이슈도 선정

LG유플러스는 ESG 경영 실현을 위한 노력을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2013년부터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고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올해 발간된 열세 번째 보고서는 ‘GRI 스탠다드 2021’를 따르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2개의 스페셜 페이지를 별도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첫번째 스페셜 페이지에는 ‘AX기술과 연결의 가치’로 고객의 밝은 미래를 열어간다는 브

랜드 목적과 활동이, 두번째 스페셜 페이지는 생물다양성 관련 활동이 담겨있다.

이번 보고서는 ‘이중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에 따라 작성됐다. LG유플러스가 경영활동을 추진하면서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 외부 환경·사회 이슈가 회사에 재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 기회 요인을 고려해 5가지 중요 이슈를 선정했다.

선정된 중요 이슈는 ▲AI 기술혁신으로 고객 감동 및 사회적 가치 제고 ▲통신 서비스 안정성 및 네트워크 품질 강화 ▲서비스 안전 및 정보보안 강화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절감 및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ICT 기술 활용 친환경 통신서비스 제공 등이다. /김서현 기자

판단하지 않는 뇌, 지식노동자의 종말



김서현 기자의 AI시대 적응하기

“3년 만에 세상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다. 갑탄인지 한탄인지 모호한 이 말에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피로와 놀라움이 동시에 담겨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회의록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일은 전적으로 ‘사람’의 몫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초안은 AI가 쓰고, 요약도 AI가 하며, 검색조차 챗봇에 묻는 일이 익숙해졌다. 우리는 더 빠르고 정확하며 많은

일을 처리하게 되었다. AI 활용 능력이 곧 경쟁력이라지만, 과연 우리는 더 유능해졌을까.

생산성은 높아졌다. 슬랙의 조사에 따르면 매일 AI를 활용하는 직장인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64% 더 생산적이며, 만족도도 81% 높았다. 96%는 AI 덕분에 이전에는 시도조차 어려웠던 창의적 작업을 수행했다고 답했다. 기술이 우리를 ‘더 잘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듯하다.

그러나 다른 질문이 뒤따른다. 우리는 정말 ‘더 잘 판단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AI가 초안을 만들고 요약하는 동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정보를 선별하고 맥락을 파악하는 그 느린 과정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최근 MIT 등 연구진은 AI 챗봇을 활용한 글쓰기 실험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를 발표했다. 챗GPT를 사용한 그룹은 스스로 생각하거나 검색한 그룹에 비해 뇌의 연결망 활동이 크게 낮았다. 즉, AI를 쓰는 동안 뇌는 덜 작동했다. 작업 이후 회복력도 떨어졌으며, 연구진은 이를 ‘인지적 부채(cognitive debt)’라 명명했다. 반복적으로 AI에 의존할수록 사고 능력이 퇴화할 수 있다는 경고다. 물론 소규모 표본과 제한된 실험 방식, 동료 검토 미완료 등 한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도구가 인간의 사고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드문 사례라는 점에서 시사점은 작지 않다.

/seoh@

KT, 수원에 ‘kt wiz’ 특화매장 선포

야구 팬들과 점점 넓혀

KT는 야구 팬들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수원 KT위즈파크 앞에 kt wiz(위즈) 특화매장을 선보였다고 1일 밝혔다.

특화매장은 통신상담과 가입이 가능한 KT 매장영업존과 팬 전용 체험 공간인 위즈 공간으로 구성됐다. 위즈 공간에는 kt wiz 선수들의 명장면을 담은 갤러리, 은퇴 선수들과 첫 우승을 기념하는 메모리얼월, 선수들이 실제 착용한 용품 전시존, 굿즈 전시·포토존, 치어폴론 등이 마련됐다.

KT는 팬들의 관람 동선을 고려해 매장 앞에 경기장과 연계된 식음료(F&B)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팬들은 키오스크에서 음식을 사전 주문한 뒤 경기장에서 간편하게 수령할 수 있다.



고객들이 수원 KT위즈파크 앞에 위치한 kt wiz 특화매장에서 체험을 즐기는 모습. /KT

매장을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는 다음달 31일까지 한정판 굿즈 증정 행사도 진행한다. 굿즈는 스티커 타투, 유니폼 와펜, 아크릴 키링, 웨빙밴드 등이며, 운영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한편 KT는 지역과 고객 특성에 맞추어 특화매장을 지속 확대 중이다. /김서현 기자

“상반기 수익률 26년 만에 최고… 내년 3600선 가능성”

코스피 ‘고공행진’

李 정부 출범, 정치 불확실성 해소
각종 증시부양책 집행 기대감 확산
外人 5~6월 코스피시장 3조 매수

“9일 美 상호관세 유예 종료 영향
하반기에 단기조정 올수도 있어”

#“3년이나 기다려 이제 겨우 본전인데…
팔아야 할지, 추가로 더 넣어야 할 지 고민입
니다. 주변 지인들을 보면 국장 유턴은 지능
순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다…” (40대
회사원 이모 씨)

코스피 상승세가 거침이 없다. 1일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58% 오른
3089.65에 마감했다. 이날 장중에는 연
고점인 3133.52를 찍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각종 증시 부양책이 집행될 것이란 기
대감이 확산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찍고 5000까
지 갈수 있을까.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은 “기업이익이 제자리인데 주가
만 오를길 기대하는 건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며, “시장 자체가 매력 있어야 기



코스피가 전 거래일(3071.7)보다 17.95포인트(0.58%) 오른 3089.65에 마감한 1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에서 관계자가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업도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자금도 모
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증시가
낮은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소극적인
주주환원 등 구조적 문제로 만성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증시로 향하는 ‘스마트머니’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향해 달리고
있다. 상반기 수익률만 놓고 보면 1999
년 이후 26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올해 상반기 수익률은 28.01% 상승했
다. 이는 1999년(57%) 이후 가장 높은
상반기 수익률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5.4%)의 5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코스피 상승세의 배경은 뭘까. 전문
가들은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한 낙관론
에 힘이 실리는데다 상법개정안에 반대
하던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에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기대감이 재차
발현된 점을 배경으로 꼽는다.

외국인이 가장먼저 반응했다. 1일 한
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해 8
월부터 올 4월까지 9개월 동안 38조
5000억 원어치의 코스피 주식을 팔아
치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발표한 4월에만 9조4000억
원을 순매도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부터 올 4월까지 1400원이 넘는 월평균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 1390.7원까지
떨어지며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섰
다. 외국인은 5월과 6월에 코스피시장
에서 각각 1조173억원, 1조9256억원어
치를 사들였다.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
환차익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 역시 커졌다.

증시 주변으로 돈이 몰려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7일 기준 투자
자 예탁금은 67조7127억원으로 늘어났
다. 전날에는 69조원대를 찍었다. 이는
2021년 1월 28일(70조3447억원) 이후 4
년 5개월만에 최대 규모다.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도 다시 고
개를 들고 있다. 신용거래용자 잔액은
전달 26일 기준 20조6831억원을 기록했
다. 지난 4월 14일(16조3045억원) 연저
점 대비 4조원 넘게 불었다. 신용용자
잔액은 통상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질 때 증가하며, 반대로 시장 불확실
성이 커질 때 투자자들이 빚을 상환하
며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코스피의 종착역은 어디쯤일까

“단기 반등, 장기 부스트업” 이재명
정부의 주가의 향방에 대한 전문가 전

망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다.

내년 상반기 코스피가 3600선까지 오
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김병연 N
H투자증권 투자전략부 이사는 최근 한
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기자간
담회에서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이 예정대로 임법되고, 기업들도 자사
주 매입 등 적극적 주주환원에 나선다
면 코스피가 내년 상반기 3600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다
만 오는 7월 9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불확실한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
리 인하 시기 등으로 올해 하반기엔 단
기 조정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김수
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고점을 정
확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해서 밸류에
이션이 비싸졌을 때 주식을 분할 매도
하는 수밖에 없다”며 “올해 예상 지배주
주 순익 기준 PER이 11.6배까지 상승
했는데 싸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
다. 그러면서 “2분기 기업 실적은 높아
진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할 가능성이
크다”며 “실적 발표 후 가격 조정이 올
수 있으므로 주식을 팔아 현금을 확보
한 뒤, 조정받은 주도 업종에 다시 투자
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상법개정·자사주 소각 이슈… ‘지주·우선주’ 뜬다

한달간 우선주 지수 12% 상승
“배당확대·주주환원에 수익률 개선”
LS·CJ 등 주요 지주사 52주 신고가

“지금이라도 ‘우지’를 사들여야 할까
요?” (40대 직장인 투자자 A 씨)

코스피가 3100선을 넘나들고,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임박하자 주식 투
자자들이 ‘우지’ 관련주를 앞다퉈 사들
이고 있다. ‘우지’란 1989년 세상을 떠
들썩하게 했던 우지(소고기 기름)가
아니라 최근 코스피 시장을 달구고 있
는 우선주와 지주회사의 앞 글자를 한
글자씩 딴 말이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
간 코스피 우선주 지수는 12.53% 상승

했다. 이를 추종하는 미래에셋자산운
용의 ‘TIGER 우선주 ETF’는 같은 기
간 13.4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순자
산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ETF 분
배율도 3%대를 기록하며 ‘TIGER 코
스피 ETF’ 등 일반 지수형 상품보다
배당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우선주도 급등세다. 두산2우B는 연초
대비 247.20% 상승했고, 삼성물산우B
(+41.54%)·한진칼우(+62.99%)도 상승
세를 나타내는 등 주가 흐름이 보통주와
비등하거나 앞지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
다. 전문가들은 “배당 확대와 주주환원
정책 강화가 우선주의 수익률 개선을 견
인하고 있다”며 “우선주가 구조적 수혜
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배당주인 ‘우선주’는 정부가 배당
촉진 기조를 명확히 밝히면서 시장에
서 재평가 받고 있다.

자사주 소각 이슈도 우선주 상승의 동
력이 되고 있다. 현행 상법상 우선주가
전체 발행주식 수의 25%를 초과하면 감
축해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보통
주의 자사주 소각이 본격화되면 우선주
도 비례 소각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주사도 상법개정이란 호재를 달고
날아 올랐다. LS, CJ, SK, 효성, 하림
지주 등 주요 지주회사 주가는 최근 일
제히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한화, D
L, LG, 영원무역홀딩스 등도 동반 강
세를 나타냈다. 지주사 주가는 그간 오
너 일가의 의결권 집중, 저조한 주주환

원 정책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 저평가
를 받아왔지만,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
주 권익 보호’와 ‘이사회 충실 의무 확대’
가 제도화되면 밸류에이션 개선 여
지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배당 확
대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강화가
결국 높은 배당수익률의 우선주 투자
매력 상승으로 이어지며 우선주가 성
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
인들은 배당수익률이 높고 변동성이
적은 우선주에 주목하고 있다”며 “지배
구조 개편에 따라 수익률 개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우선주가 구조적 수혜
주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삼성자산운용 KODEX 증권 ETF 순자산 3000억 돌파

삼성자산운용은 1일 KODEX 증권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이 3000
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국내 증권업종 대표 기업
들을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담은 K
RX 증권 지수를 추종하며, 최근 증권
주 강세 흐름을 타고 빠르게 몸집을 불
리고 있다.

KODEX 증권 ETF의 수익률은 1개
월 27.6%, 3개월 79.9%, 6개월 93.9%
를 기록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
장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증
시가 급등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코스피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며 증권사들의 거래 수수료
이익 증가 등 실적 개선 기대가 높아지
자 증권주 전반이 강세를 보였다.

높은 수익률에 힘입어 이 ETF의 순
자산은 5월 말 1005억원에서 6월 말
3202억원으로, 한 달 만에 2000억원 이
상 증가했다. 개인 투자자의 투자금도
몰리고 있는 추세다. 연초 이후 개인 순
매수 규모는 1110억원을 기록해 1000
억원을 돌파했으며, 지난 일주일간 개
인 순매수도 335억원으로 KODEX
200에 이어 전체 ETF 중 세 번째로 높
았다.

/원관희 기자

美 증시 상승세… 서학개미, 배당주·반도체 하락 ‘방어적 베팅’

해외주식 Click

지난주 SCHD 4056만 달러 순매수
반도체 반대 추종 SOXS 2911만 달러

미국 증시가 고평가 논란 속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자 일부 서학개미(해
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
들은 안정적인 배당주 및 하락한 반도
체주에 투자하는 등 방어적 포트폴리
오를 구사하고 있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중
동 리스크 완화와 금리인하 기대감에
힘입어 미국 증시는 6월 한 달간 주요
지수가 모두 강세를 나타냈다. S&P

500 지수는 5% 이상, 나스닥지수는
6% 넘게 올랐으며, 다우지수도 약
4% 상승했다. 2분기 초반까지만 해
도 글로벌 무역 갈등과 관세 우려로 S
&P500이 약세장 진입 직전까지 밀리
기도 했으나, 투자심리는 빠르게 반
전됐다.

서학개미들은 지난주(6월 24~30일)
기준으로 슈왓 미국 배당주 ETF(SCH
D)를 4056만달러 규모로 순매수했다.
SCHD는 미국의 고배당 대형주를 중
심으로 구성된 ETF로,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 재무부가 외국인 투자자

에 대한 보복성 과세 조항(제899조) 삭
제를 의회에 요청하면서, 배당주 투자
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기대도 투자심
리에 영향을 미쳤다. 세법개정안의 제
899조는 미국 정부가 차별적이라고 판
단한 국가의 투자자가 미국 내에서 얻
은 이자·배당 소득에 추가 세금을 물리
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법정 세율 대비 5%포인트를 추
가부과하고,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해
최대 20%포인트까지 높일 수 있다. 이
런바 ‘보복세’로 불리는 이 조항은 외
국인 투자자의 배당 세금 부담을 늘려,
미 배당성장 ETF 수익률의 발목을 잡
은 주요인으로 꼽혀 왔다.

AI 투자 열풍 속에 반도체주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학개
미들은 반대로 하락 위험에 대비한 움
직임도 나타냈다. 이들은 ICE 반도체
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반대로 3배 추종
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베
어 3배 ETF(SOXS)를 지난주 2911만
달러 규모로 순매수했다. ICE 반도체
지수가 지난주 6%가량 오르는 강세를
보였음에도, 이같은 투자는 단기 조정
가능성과 고평가 부담을 의식한 시장
변동성 대응 전략으로 해석된다.

증권가에서는 미 증시가 부담스러운
구간에 진입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기업 실적 모멘텀이
증시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
으로 내다보고 있다.

/원관희 기자

티메프 여파에 소비심리 한파 이쿠폰 위축, 거래액도 ‘둔화’

통계청, 5월 온라인쇼핑동향
온라인쇼핑 증가율 0%대 머물러
음식·농축산물 선방, 소비 이중화
전문몰 상승… 종합몰 거래 뒷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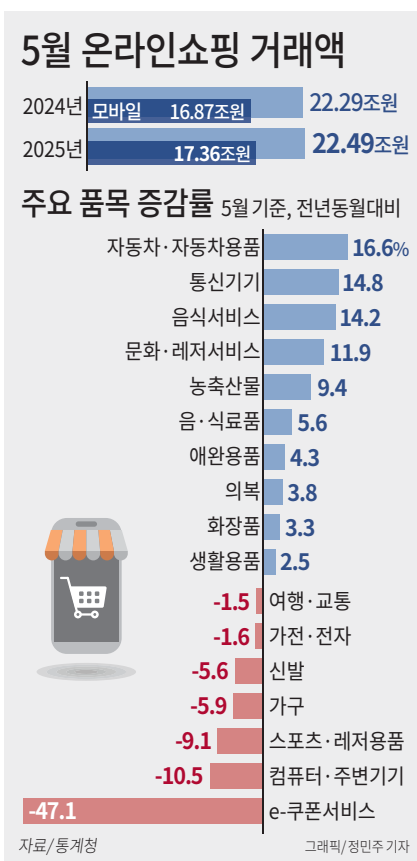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세가 둔화하며 올해 5월 이 부문 성장률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이쿠폰 이용이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5년 5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5월 거래액은 22조489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 0.9%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7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증가율이 처음으로 1% 선을 밑돌았다. 전달인 4월 수치는 전년동월 대비로 +2.8%였다.

이쿠폰서비스(-47.1%·5143억 원)가 1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최창윤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지난해 티메프 사태 이후 이쿠폰서비스 감소가 40~50%대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 폭이 둔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체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쇼핑 거래액 비중은 27.7%로 전년(27.2%)보다 소폭 늘었다. 상품군별로는 음식서비스(+14.2%), 음·식료품(+5.6%), 농축수산물(+9.4%) 등의 거래액이 증가를 이끌었다.



배달플랫폼 사용 증가와 더불어 온라인장보기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음식료품과 농축수산물의 거래가 증가세를 주도하는 모습이다.

특히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3조4413억 원으로 전체 온라인쇼핑의 15.3%를 차지했다. 이어 음·식료품(3조865억 원) 13.7%, 여행 및 교통서비스(2조8193억 원) 12.5% 순으로 구성비가 높았다.

반면 이쿠폰서비스 거래액(5143억 원)은 전년대비 47.1% 감소하며 부진을 지속했다. 지난해 중순부터 이어진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여파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10.5%), 스포츠·레저용품(-9.1%) 등에서도 줄었다.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7조36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9%(4915억 원) 늘었다. 전체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 비중은 77.2%로, 지난해 같은 기간(75.7%) 대비 1.5%포인트(p) 커졌다.

모바일 비중은 음식서비스(98.9%), 이쿠폰서비스(90.5%), 아동·유아용품(82.7%) 등에서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 간 경쟁적 마케팅, 공공배달앱 신규 진입 등으로 음식서비스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할인 지원 등으로 신선식품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급상품 범위별로는 종합몰 거래액이 12조3815억 원으로 전년대비 4.6% 감소했다. 이에 반해,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한 전문몰 거래액은 10조1054억 원으로 8.5% 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다.

한편 온라인쇼핑 전체에서 온·오프라인 병행몰의 거래액은 5조518억 원으로 0.4% 줄었다. 순수 온라인몰은 17조4352억 원으로 1.3% 늘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한전 홈페이지, ‘고객 중심’ 새단장 오픈

모바일 최적화·통합ID 등 도입

한국전력은 고객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www.kep.co.co.kr)를 전면 개편하고 1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뉴얼은 10년 만에 단행한 전면 재구축으로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 고려해 모바일기기로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설계됐다.

또 한전의 다양한 에너지 사업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해 전력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초점을 뒀고, 글로벌 이용자를 위한 영문 콘텐츠 대폭 확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 기능 도입 등 접근성을 높였다.

또 통합ID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이 하나의 회원번호(ID)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한전ON, 에너지마켓플레이스

등 한전의 모든 디지털 서비스를 통합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로그인 간편인증을 도입했다.

박종운 한전 ICT기획처장은 “이번 홈페이지 리뉴얼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했고,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Global Energy & Solution Leader’로서의 이미지를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시작으로 개인별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최신 신기술·신사업 정보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해 내실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고객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한다.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퀴즈, SNS 공유 이벤트를 시행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수원, 더 안전한 원전연료 첫 장전

국산 사고저항성핵연료 적용

한국수력원자력이 1일 한울3발전소에서 황주호 사장과 유관기관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사고저항성핵연료 시범집합체 장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고저항성핵연료 시범집합체가 원전에 장전된 것은 이번이 국내 최초다.

사고저항성핵연료는 기존 핵연료보다 안전성을 높인 것이 특징으로, 크롬(Cr) 코팅 피복관과 성능을 개선한 소결체(LAS-Doped UO2 pellet)로 구성돼 있어 유사시 원전의 안전여유도를 확보할 수 있다.

한수원은 한전원자력연료(주)와 함께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 핵심기술사업의 하나로 사고저항성핵연료 개발에 착수했으며, 2022년 기술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후 2024년 5월 새울2호기에서 ‘시범연료봉’의 연소시험에 착수했으며, 지난달부터는 ‘시범집합체’ 4다발을 한울6호기에 장전하고 현재 연소시험을 하고 있다.

앞서 EU는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에 포함하면서 사고저항성핵연료 사용 등을 조건으로 내건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1일 한울3발전소에서 ‘한울6호기 사고저항성핵연료 시범장전 기념사’를 하고 있다.

/한수원

바 있으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역시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이번 사고저항성핵연료 개발은 원전의 녹색에너지 적용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탄소중립 달성에 원전이 활용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은 물론, 해외 시장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은 2029까지 연소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후 시험 및 인허가를 취득해 상용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국내 고유 기술로 개발된 사고저항성핵연료는 원전의 안전성 향상 및 원전 수출의 기반이 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원전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환불 거부 반복한 쇼핑몰 사업자, 검찰 고발

공정위, 청약철회 방해 쇼핑몰 제재
해킹 등 2곳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며 상습적으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을 반복 위반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상호를 바꿔 위법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일 티움커뮤니케이션과 햅핑 등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환불을 지연·거부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주)티움커뮤니케이션과 실질적 운영자 조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상품 배송지연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요구한 소비자 100여명에게 대금을 환불하지 않거나, “24시간 이내 환불 접수” 등 부당한 조건을 내걸어 법이 보장한 청약철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 씨는 (주)티움커뮤니케이션 명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아, ‘티움커뮤니케이션’ 또는 ‘대박’이라는 상호로 다시 개인사업자를 등록해 같은 위법행위를 반복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썬다구마켓(wowssa.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대금반환지급명령·영업정지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티움커뮤니케이션과 조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씨가 운영중인 프리미엄마켓 홈페이지 캡처.

/뉴시스

‘프리미엄마켓(prm.pe.kr)’, ‘다있다몰(da001.co.kr)’ 등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묵살하거나 마일리지로만 환불하겠다고 고지했다.

또 ‘불량제품만 반품 가능’, ‘반품은 수령 후 24시간 내 접수’ 등의 문구를 명시해, 법이 정한 ‘배송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거짓 정보를 통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 저촉된다.

같은 방식으로 소비자 권리를 방해한 햅핑(대표 조재오)도 운영 중인 ‘에스몰(small.pe.kr)’에서 반품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해당업체들에 행위중지명령, 대금지급명령, 영업정지명령(티움

커뮤니케이션 135일, 햅핑 90일), 수명 사실의 공표명령(8일), 과태료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주)티움커뮤니케이션은 작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환불요청 105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실질적 운영자인 조모씨와 함께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소비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 철회권을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한국잡월드, 체험형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플레이큐리오와 XR·IP 활용 협력

국내 최대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는 (주)플레이큐리오와 어린이대상 체험 콘텐츠의 공동개발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어린이 콘텐츠 공동 개발 및 보급, 전시 체험형 콘텐츠 전시 및 홍보, 정부 사업 공동 참여 등을 추진한다. 또한, 한국잡월드 체험관과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어린이 문화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플레이큐리오는 EBS와 공동 제작한 애니메이션 ‘명탐정 피트’ 등 다수의 자체 지적재산권(IP)을 보유한 콘텐츠 기업으로, 아날로그 교구와 확장현실(XR) 기술을 결합한 아동 실감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오프라인 체험관과 디지털 콘텐츠 간 연계를 통해 어린이 진로 교육의 다양성과 품질을 높일 방침이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통해 어린이 진로 체험의 폭을 넓히고,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대구시, 지방세 체납액 1015억… 3년 연속 증가

(2024년)

중구 제외한 구·군 체납액 급증
부동산·건설 경기 악화 등 영향
“대부분 납세자는 성실히 납부”

대구시와 각 구·군의 지방세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와 9개 구·군에 따르면 대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756억 원에서 2023년 903억 원, 2024년 1015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중구를 제외한 각 구·군의 지방세 체납액이 최근 3년 동안 매년 증가했다.

특히 달서구는 2022년 143억 원에서 지난해 207억 원으로 체납액이 급

증했다. 같은 기간 수성구도 118억 원에서 177억 원으로, 달성군도 140억 원에서 187억 원으로 체납 규모가 꺾충 뛰었다.

이외의 구·군도 지난해 납부되지 않은 세금이 막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은 동구 135억 원, 북구 117억 원, 서구 64억 원, 중구 52억 원, 남구 48억 원, 군위군 13억 원으로 조사됐다. 대구시가 관리하는 광역시세 체납액은 15억 원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중에는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건설 경기 악화로 공동주택 개발 사업이 중단되면서 부동산 개발·임대업인의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소득세 체납이 늘어난 것

으로 풀이된다.

고액 체납자 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대구에서 5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2022년 940명에서 2023년 1229명, 2024년 1406명으로 늘었다.

대구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출납금지, 재산 압류 등 조치를 통해 8년 연속 전국 17개 시·도 중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체납자수와 체납액이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2021년에는 지방세 체납액이 줄었는데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늘었다. 지난해에는 경기가 많이 안 좋아 체납액이 늘었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 납세자는 성실히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징수가 안 돼서 대구시나 구·군의 사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면서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들에게는 강력하게 징수를 처분하고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빈 박사는 “서민 경제가 어려워 징수가 안 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체납이 왜 발생하는지 자세한 실태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지자체가 체납자들의 경제 상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골굴사 전경

경주시

‘경북 웰니스 관광지’ 최다 선정

경주시는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5년 경북 웰니스 관광지’ 공모에서 관내 3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경북도의 웰니스 관광 자원을 새롭게 발굴하고,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체류형 힐링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골굴사(힐링·명상 분야) ▲코오롱호텔(스테이 분야) ▲토함산자연휴양림(자연치유 분야) 등 3곳이 이름을 올리며 도내 최다 선정의 성과를 거뒀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부산시는 지난달 30일 사상구 임궁유수지에서 ‘임궁대교 건설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가운데)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시

부산시, ‘임궁대교 건설사업’ 본궤도

기공식 개최… 2030년 완공 목표
맥도교 등 2개 교량, 2개 교차로 포함

부산시는 지난 30일 사상구 임궁유수지에서 임궁대교 건설 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김도읍·김대식 국회의원, 이종환 부산시의회 부의장과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모여 착공을 축하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 소개, 사업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기공식 퍼포먼스 순으로 40분간 진행됐다.

임궁대교 건설 사업은 예코델타시티가 있는 강서구 대저2동에서 사상구 임궁동 승학터널까지 2.91km 구간 에 왕복 6~8차로 도로를 조성하는 사

업이다.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임궁대교와 맥도교 등 2개 교량, 2개 교차로 건설이 포함된다.

부산시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며 공사기간 중에도 유관기관, 전문가, 환경단체와 꾸준히 협의해 자연과 공존하는 교량 건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임궁대교는 낙동강 횡단교량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예코델타시티 등 신성장 거점 연결을 강화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서부산권은 예코델타시티, 가덕도신공항 등 부산의 미래 성장 동력이 집중된 핵심축으로, 임궁대교가 이들 거점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김해시, 창업 지원 기관협의체 출범

기관 간 협력 통해 정책효과 극대화

김해시가 지역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15개 창업 지원 유관 기관과 손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김해시는 지난달 30일 시청에서 창업 지원 기관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15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는 경남중소벤처기업청,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테크노파크, 기술보증기금 김해지점,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김해연구원, 인제대학교 창업지원단, 김해대학교 취창업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동부지부, 한국재료연구원, 경남벤처투자, 시리즈벤처스, 한국엔젤투자협회 동남권엔젤투자허브, 김해스타트업포럼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 참여 기관들은 앞으로 지

역 내 유망 기업과 특화 기업 발굴 및 육성, 각 기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행사 정보 공유, 창업 지원 공동 사업 및 협력사항 발굴, 프로그램 연계 방안 모색, 창업 정책 자문, 기타 협력 사업 추진 등의 역할을 맡는다.

김해시는 이번 협의체 구성으로 기존 창업 지원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유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정책 추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종환 경제국장은 “창업 초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행정과 현장의 연결고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약과 협의체 운영을 계기로 각 기관이 가진 전문성과 자원을 연결해 관내 창업 기업들에 더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임종식 “경북교육 ‘확장·안착·전환’ 주력”

〈경북교육감〉

경북교육청, 취임 3주년 기자회견

경북교육청은 지난 30일 본청 응비관에서 민선 5기 임종식 교육감(사진)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간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경북교육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도약기를 맞이한 민선 5기 임 교육감의 임기 중반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확장·안착·전환’이라는 3가지 전략으로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임 교육감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3년간 경북교육은 위기 속에서도 교육공동체의 따뜻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일궈냈다”며 대표 사례로 지난봄 경북을 뒀던 대형 산불 당시 대응과 회복 과정을 언급했다.

당시 임 교육감은 직접 피해 현장



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온(溫)전한 교육복지 119’ 긴급체계를 가동했다. 굿네이버스 등 민간기관과 협력해 약 23억 원 규모의 생계비와 물품을 긴급 지원한 사례를 소개하며, 함께 위기를 극복해준 교육가족과 도민, 민간단체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서 향후 정책 방향으로 ‘확장·안착·전환’을 제시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7년간 따뜻한 경북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어왔다”며 “앞으로 경북교육의 확장과 만족을 더하는 안착, 미래를 여는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고, 세계 교육의 새로운 서사를 경북에서 써 내려가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

포항시, ‘포송마차 축제’ 10만여명 발길

市, 상설 야시장 전환 등 확대 검토

포항시가 선보인 야간 경제활성화 프로젝트 ‘포송마차’가 2주간 10만여명의 발길을 끌었으며 시민은 물론 관광객과 상인 모두에게 의미 있는 성과를 안기고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포송마차’ 축제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송도해수욕장 일원에서 야시장 형태로 열렸다. 송도해수욕장 백사장을 따라 펼쳐진 30여 개의 포장마차,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포항 특

산물 먹거리, 아름다운 해변 야경이 어우러진 이번 행사는 ‘포항형 야간 축제’ 모델로 주목받으며 전국 지자체의 관심을 끌었다.

행사 기간 동안 송도해수욕장 일대 상가와 포장마차 부스의 매출은 평소 대비 평균 3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는 이번 행사를 일회성 축제가 아닌 계절별 상설 야시장 또는 도심 상권 분산형 야간축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해수욕장 8곳 환경 기준 ‘적합’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산 지역 해수욕장 8곳에 대한 수질 및 백사장 모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해수욕장 수질조사에서는 수인성 질병의 지표세균인 장구균과 대장균의 검출 정도를 확인했다. 백사장 모래는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 비소, 납, 수은, 6가크롬 총 5개 항목에 대한 검출 정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수질과 백사장 모래 모두 해수욕장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 환경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이도식 기자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유망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비수도권 유망 스타트업들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했다.

지난 27일 ‘스스로 프로젝트 Prep 베트남’ 발대식을 열고 선정된 20개 스타트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발대식에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납부발전, 부산창경 관계자와 선정 스타트업 임직원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베트남 진출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오는 8월에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현지 산업계 관계자 및 IR 발표, 네트워킹, 스타트업 생태계 탐방, 현장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고 ‘InnoEX 2025’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울릉군

70세 이상 농어촌버스 무료 승차

울릉군은 1일부터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 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 무료 승차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상 울릉군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은 울릉군 관내 농어촌버스 전 노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군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더욱 독려하고, 지역내 활력 회복과 공동체 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릉(경북)=김진곤 기자

불닭 이어 ‘맵’ 장전… 삼양식품, 글로벌 맛 포트폴리오 확장

삼양식품 시총 10조, 코스피 54위
1분기 영업이익 1340억 67% 증가

태국 시작 日·말레이서 ‘맵’ 론칭
현지 입맛 맞춰 시리즈 출시 예정
건기식·콘텐츠 IP 등 사업도 확대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시가총액 10조 원을 돌파한 삼양식품이 ‘불닭’의 인기를 넘어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으로의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양식품의 시가총액은 지난 6월 27일 종가 기준 10조 490억 원으로, KOSPI 시총 54위에 올랐다. 이는 CJ제일제당, 농심, 오리온 등 주요 식품기업 세 곳의 시총을 합친 규모에 맞먹는다.

삼양식품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한 1340억 원을 기록했으며, 2분기 실적도 호조가 예상된다. 회사는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장기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맵(MEP)’ 브랜드다.

‘맵’은 K-푸드의 핵심인 매운맛에서 착안한 국물라면 브랜드로, 지난해 12월 태국을 시작으로 올해 2월 일본, 5월



말레이시아에 잇따라 론칭됐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세븐일레븐 2500개 매장에 단독 입점하며 현지 라면 시장을 본격 공략 중이다. 론칭 기념으로 지난달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팝업스토어에는 4일간 1만5000명이 방문해 현지 반응을 입증했다.

삼양식품은 각국 소비자 입맛에 맞춘 ‘맵’ 시리즈 제품을 추가 출시할 예정이며, ‘그릴드 갈릭 슈림프 라면’, ‘블랙페퍼 치킨 라면’ 등 다양한 맛 변주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회사는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불닭볶음면이 포장되어 나오고 있다. ▲지난달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맵’ 팝업스토어에는 4일간 1만5000명이 방문해 현지 반응을 입증했다.

/삼양식품

생산 역량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하루 22시간 이상 가동 중인 기존 원주·익산·밀양1공장 외에, 7월부터는 밀양제2공장이 주간 생산에 돌입한다. 연간 8억3000만 개 생산이 가능한 이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전체 생산량은 연간 28억 개로 확대된다.

중국 저장성 자싱시에 건설 중인 2014억 원 규모의 현지 공장도 핵심 전략 중 하나다. 2027년 완공 후에는 연간 최대 7000억 원 규모의 제품을 중국 내 수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법인을 거점으로 남미 진출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식품을 넘어 건강기능식품과 콘텐츠 IP 등 신규 사업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식물성 헬스케어 브랜드 ‘책애플스’는 비건 단백질 음료 ‘프로틴드롭’을 시작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식물성 냉동 간편식을 포함한 제품군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헬스바이옴과의 협업으로 근력 개선 기능성 원료 ‘HB05P’ 제품을 국내에 독점 공급하기로 했으며,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콘텐츠와 커머스를 아우르는 계열사

삼양애니의 행보도 주목된다.

삼양애니는 유튜브 채널 ‘JohnMaa t’과 ‘PEPPO’를 통해 누적 조회수 3억 3000만 회, 총 구독자 수 120만 명 이상을 확보하며 글로벌 콘텐츠 채널로 입지를 다졌다.

상하이 법인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 등으로 글로벌 커머스 및 마케팅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 같은 신사업은 삼양식품 오너3세인 전병우 삼양라운드스퀘어 전략총괄(상무)이 이끌고 있으며, 디지털 기반의 신규 성장동력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지난달 밀양 제2공장 준공식에서 ‘불닭’ 이후의 브랜드를 발굴하고, 매운맛의 다변화를 통해 글로벌 소비자에게 어필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바 있다. 단일 품목의 인기에 안주하지 않고, 브랜드·생산·유통·IP·건기식 등 다층적 구조를 갖춰 지속가능한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 변모하겠다는 의지다.

업계 관계자는 “삼양식품은 이제 ‘불닭’의 성공을 넘어, K-푸드 산업 전체의 성장 방향을 보여주는 선도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쇼핑, 온실가스 감축 등 ESG전략 공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예비아빠 태아검진휴가 등 선제도입
CEO 기업설명회 데이 정례화 시켜

롯데쇼핑이 지난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성과와 향후 지속가능 경영 전략을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롯데쇼핑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에서는 5대 중대 이슈를 중심으로, 기업 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외부 요인이 회사 재무에 끼치는 영향을 짚었다. 5대 중대 이슈에는 ▲제품·서비스 환경영향 관리 ▲제품·서비스 품질 및 안전 ▲동반성장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 부문에서 롯데쇼핑은 자사를 유통업 전반의 온실가스 작·간접 배출량(스코프1·2·3)을 2031년까지 2021년 대비 46.2%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롯데쇼핑은 지난 3월 국내 유통업계 최초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이하 SBTi)’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사회 부문에서는 ‘예비아빠태아검진휴가’, ‘아기소방 휴직’, ‘남성 의무 육아 휴직’ 등 가족친화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 및 확대해 파트너사 저출산 문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 외에도 인권경영, 인재경영,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강화

하고파트너사·지역사회·임직원과의 상생 실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최고경영자 기업설명회 데이(CEO IR Day)’를 정례화하고, 최소 배당금 제시, 중간 배당 시행, 배당절차 개선 등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주주환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상현 롯데쇼핑 총괄대표이사 부회장은 “롯데쇼핑은 ESG를 경영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진정성 있는 실행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유통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주, 고객, 파트너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고객의 첫 번째 쇼핑 목적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하림 ‘The미식 게임’ 이벤트

하림이 오는 31일까지 ‘더미식 오징어 초밥면’ 번들팩 구매자를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 ‘The미식 게임’을 진행한다.

이벤트는 해당 제품 번들팩 내 동봉된 스크래치 쿠폰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전원에게는 자사몰 20%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1등(3명)에게는 LG 휘센 오브제컬렉션 타워I 에어컨, 2등(10명)에게는 제습기, 3등(100명)에게는 더미식 비빔면 1팩이 증정된다. 쿠폰 등록 및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더미식 오징어 초밥면은 지난달 16일 출시된 제품으로, 오징어 초무침을 모티브로 개발됐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더미식 공식 자사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노브랜드 매장에 日 ‘고구마 소주’ 론칭

신세계L&B ‘쿠로 히코보시’ 제품

신세계L&B가 ‘쿠로 히코보시(사진)’ 일본 고구마 소주를 전국 ‘노브랜드’ 매장에 출시한다.

‘쿠로 히코보시’는 일본 소주 본산인 가고시마에 1887년 설립된 가족경영 양조장 ‘타사키 주조’에서 생산하는 고품질의 고구마(사츠마이모) 소주다.

‘타사키 주조’는 2025년 TWSC(도쿄 위스키&스피릿)에서 일본 소주 생산자 부문 ‘최고금상’을 수·상한 양조장이며, 가고시마 소주 정부인증제의 인증 생산자이다.

‘쿠로 히코보시’는 일본 가고시마에서 자라난 고구마를 염색하여 검은 누룩으로 양조한 다음 2년 동안 숙성된 원주(原酒)에 1년 숙성된 원액을 블렌딩한다. 용량은 900ml이며, 알코올 도수는 25도다.



고구마 특유의 깊은 풍미와 부드러운 목넘김이 인상적이며, 구수한 고구마 향, 깔끔한 피니시가 매력적이다.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는 시원한 냉수를 2:1 비율로 섞어 마시는 일본식 ‘미츠와리’나 얼음을 넣어 마시는 것을 추천한다.

신세계L&B 관계자는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 고구마 소주를 많은 애주가분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에 기획했다”며 “실속 있는 가격으로 일본 고구마 소주 특유의 깊은 풍미와 매력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롯데百, 142개 브랜드 참여 ‘웨딩페어’

4일부터 13일까지 전 지점 진행

롯데백화점이 이달 4일부터 13일까지 전 지점에서 예비부부를 위한 ‘롯데웨딩페어’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총 142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대표적으로 에이스, 시몬스, 템퍼 등 프리미엄 침대 브랜드와 함께 프리츠한센, 루이스폴슨 등 디자이너 가구·조명 브랜드 등이 있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웨딩페어를 통해 ‘웨딩마일리지 추가 적립’ 혜택도 제공한다. 웨딩마일리지는 롯데웨딩멤버스 가입 후 9개월간 롯데백화점에서 구매한 금액을 바탕으로, 누계 적립 금액 최대



7% 상당을 롯데 상품권으로 증명하는 환급 프로그램이다. 웨딩페어 기간에는 구매 금액의 최대 2배까지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행사 기간 내 구매 브랜드 수 혹은 구매 일수에 따라 마일리지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웨딩 챌린지’ 이벤트도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박상우 영업전략부장은 “7월이 본격적인 이사·입주 수요가 집중되는 시즌인 만큼, 이번 웨딩 페어 행사는 관련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참여를 강화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GS25-SKT 제휴… 화요일 신선식품 할인

1000원 당 200원… 최대 2만원 적용

편의점 GS25가 SKT와 손잡고 T 멤버십 할인 혜택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SKT T 멤버십 고객은 매주 화요일, 도시락·김밥·주먹밥·샌드위치·햄버거 등 신선식품을 대상으로 멤버십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000원 당 200원이 할인되며, 멤버십 등급 관계 없이 1회, 할인 금액 기준 최대 2만원까지 적용된다. GS25는 신규 고객 유입 확대, SKT는 멤버십 만족도 제고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이번 협업을 추진했다

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양사는 앞으로 할인 혜택 대상 품목을 넓히고, T 멤버십 컬래버 상품 및 다양한 프로모션을 차례대로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GS25는 이번 SKT와의 제휴를 마지막으로, 통신3사(SKT, LG유플러스, KT) 멤버십 할인 체계를 모두 갖추게 됐다. GS리테일 이경표 마케팅부장은 “GS25는 통신 3사 멤버십과 모두 제휴를 맺은 유일한 편의점으로서 고객들이 각자 사용하는 통신사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비 채널이 됐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콜마그룹, 분쟁 속 계열사 재편… 콜마비엔에치 체질 개선

건기식 실적 부진 속 쇄신 추진
윤상현 부회장, 이사회 재구성
윤여원, 주총 저지 법적 대응
이달 임시 주총서 주도권 대결

콜마그룹 창업주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남매 갈등에서 오너 1세와 2세의 충돌로 커진 가운데, 그룹 지주사인 콜마홀딩스가 본격적인 계열사 재정비를 예고했다.

콜마홀딩스는 건강기능식품 위탁개발생산(ODM) 기업인 콜마비엔에이치를 생명과학 전문기업으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최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콜마비엔에이치의 부진한 실적 개선에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재정비의 신호탄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다만, 윤 부회장의 여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엔에이치 대표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갈등 심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콜마홀딩스는 생명과학분야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고부가가치 사업’ 기회를 모색해 그룹 신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콜마, HK이노엔 등이 호실적을 기록하며 그룹 전체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데 비해 콜마비엔에이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판단이다.

기존 한국콜마, HK이노엔, 콜마비엔에이치는 각각 화장품, 의약품, 건강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왼쪽부터)과 윤여원 콜마비엔에이치 대표는 운동한 콜마그룹 회장의 장남·장녀로, 윤상현 부회장은 윤여원 대표의 오빠다.



기능식품 등에서 핵심 역량을 집중하며 그룹의 3대 성장축 역할을 해 왔다. 다만 콜마비엔에이치만 고전을 겪고 있다.

콜마비엔에이치는 지난 2024년 연결 기준, 전년 대비 6.2% 증가한 615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302억원에서 2024년 246억원으로 19% 줄었다.

올해 들어서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역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누적 매출은 1849억원, 누적 영업이익은 108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9.5%, 영업이익은 14.9% 감소했다.

실적뿐 아니라 기업 가치 측면에서도, 콜마비엔에이치 시가총액은 2020년 8월 2조1242억원에서 2025년 6월 4259억원으로 축소됐다. 같은 기간 7만 원대에 달했던 주가도 1만원대로 떨어졌다.

이와 관련, 콜마홀딩스 측은 “콜마비엔에이치 주력 사업 재편과 함께 경영 정상화와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여원 콜마비엔에이치 대표가 본연의 사업에 소홀했다는 점을 짚었다.

콜마비엔에이치는 지난 2024년부터 윤여원 대표 단독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윤동한 회장이 이사회에 복귀하며 책임경영을 강화한 바 있다. 2024년 전체 매출에서 건강기능식품 사업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4.8%이며, 화장품 사업 42.4%, 기타 사업 2.8% 순이다.

콜마홀딩스에 따르면, 이중 ‘콜마생 활건강’은 콜마비엔에이치의 화장품 및 일반식품 도소매 자회사로, 윤여원 대표가 독단 추진했던 사업이다. 콜마생 활건강은 최근 5년간 매년 적자가 이어졌고 누적 적자 규모는 100억원을 넘겼다.

또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엔에이치의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 자회사 ‘에치엔지’가 케이비랩에 부당 인력을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사항도 문제 삼았다. 그룹 내 관계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첫 사례로,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위험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케이비랩은 윤여원 대표가 100% 주식을 보유했던 개인회사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지난 4월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은 콜마비엔에이치 이사회 재구성을 목적으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이후 윤동한 회장은 ‘남매 경영’을 강조하며 화장품·제약 부문은 장남 윤상현 부회장이, 건강기능식품 부문은 장녀 윤여원 대표가 맡고 있는 현 체제를 강조했다. 윤동한·윤상현 부자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윤동한 회장은 장녀 윤여원 대표의 ‘독립 경영’을 공개 지지하며 갈등이 심화됐고, 윤동한·윤여원 부녀 측은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7월 2일 오후 4시 20분 대전지방법원에서 윤상현 부회장의 임시 주총 소집 요구에 대한 윤여원 대표의 가처분 신청 심문이 진행되며, 추후 해당 임시 주총이 열릴 경우,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각각 콜마비엔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다뤄진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인삼 클래스’ 개설

뷰티과학 직접 체험

아모레퍼시픽은 서울북촌설화수의 집과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설화수 ‘인삼 클래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행사는 오감으로 느끼는 인삼 체험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럭셔리 스킨케어 브랜드 설화수가 60여 년간 이어온 인삼 연구를 소개한다. ‘인삼꽃향’ 시향, ‘DIY 향낭 및 인삼 입욕제’ 만들기 등을 통해 설화수가 지향하는 브랜드 가치관인 홀리스틱 뷰티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인삼 입욕제 만들기 체험에서는 설화수가 독자 개발한 ‘뷰티 사포닌’ 성분과 브랜드 대표 성분 ‘자음단’을 활용해 자신만의 인삼 입욕제를 제작한다. 설화수는 다과 시간도 마련해, 체험 후에는 인삼 티와 한국 전통 티푸드를 제공한다.

설화수 관계자는 “이번 인삼 클래스는 브랜드 핵심 원료인 인삼의 효능을 피부로 느끼고 깊이 이해하는 자리”라며 “고객들이 설화수의 철학을 오감으로 향유하며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화수 인삼 클래스는 네이버 예약 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

/이청하 기자

주사통증 낮춘 ‘오보덴스’… 골다공증 치료 선택넓혀

삼성바이오에피스-한미약품

프롤리아 대비 13% 저렴한 약가 강점

삼성바이오에피스와 한미약품이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등의 치료제 ‘오보덴스’를 발매한다고 1일 밝혔다. 제품 생산 및 공급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담당하고, 마케팅 및 영업은 양사가 공동 진행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오보덴스는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의 바



‘오보덴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이오시밀러다. 오보덴스 약가는 10만 8290원(60mg/1mL 기준)으로 급여 등재됐고 이는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약

13% 저렴한 수준이다. 오보덴스는 원내 보관이 간편하고, 29개이지의 얇은 주사 바늘로 설계해 주사 시 통증을 완화해 주는 등의 특징점을 갖췄다.

이와 관련 양사는 지난 5월에도 대한골대사학회 국제 학술대회에 함께 참여해 국내 의료진 및 업계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제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알렸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오보덴스와 오리지널 의약품의 유사성을 입증한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최첨단

/이청하 기자

의 비교 분석법을 활용해 오보덴스의 구조적,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물질 특성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국내영업총괄 이상현 상무는 “오보덴스 경쟁력은 합리적인 약가와 글로벌 규제 기관에서 인정받은 품질”이라며 “오리지널 의약품의 대체제가 아닌 국내 골다공증 환자 치료에 보다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P&G 다우니

“장원영과 상쾌하게”

민트·플로럴향 선택

한국P&G는 섬유유연제·세탁세제 브랜드 다우니에서 신규 브랜드 모델로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을 발탁하고, 기존 브랜드 핵심 제품을 재단장한다고 1일 밝혔다.

한국P&G에 따르면, 다우니는 긍정적이고 사랑스런 이미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장원영이 세탁 후의 상쾌함을 지향하는 브랜드 이미지와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 함께 다우니 실내건조 섬유유연제’의 향기를 총 3종으로 구성해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신제품으로 자스민과 릴리의 잔향이 어우러진 ‘프레시 클린’, 장미, 체리, 피오니 등을 조합한 ‘플로럴 프레시’, 민트와 시트러스의 청량함에 화이트 플로럴과 머스크를 더한 ‘샴애타취 민트&시트러스’ 등을 출시한다.

또 다우니 섬유유연제 최초로 ‘햇빛 건조 프레시 효과’ 기술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실내 건조 시 발생할 수 있는 짙은 냄새의 원인이 되는 성분을 제거하고, 건조기 사용 후에도 햇빛에 말린 듯한 상쾌함과 보송보송한 햇빛 향기가 지속된다.

/이청하 기자

“하루 한 번 복용하는 당뇨병 복합제”

셀트리온제약

‘네시나메트서방정’ 국내 출시

셀트리온제약은 당뇨병치료제 ‘네시나메트서방정’을 국내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네시나메트서방정은 당뇨병 치료제로 쓰이는 주성분인 ‘알로글립틴’과 ‘메트포르민’을 복합 처방한 것이다.

제품 용량은 알로글립틴·메트포르민 성분 기준, 12.5mg·500mg, 12.5mg·1000mg, 25mg·1000mg 등 총 3가지다. 보건복지부 약제 상한금액 고시에 따라 보험약가는 12.5mg·500mg과 12.5mg·1000mg 제품이 503원, 25mg·

1000mg 제품이 758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제약은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네시나메트서방정은 약효가 오래 지속되는 서방형 제제로 설계해 복용 편의성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기존 1회 이상 나눠 복용하는 속방형 메트포르민을 하루 한 번만 복용하도록 개선했다.

셀트리온제약 관계자는 “꾸준한 품목 확대와 제제 개선을 통해 확대되는 당뇨병치료제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JW중외제약,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 선택

‘타발리스정’ 약가 2만3천원대

식사 관계없이 복용 가능 신약

JW중외제약은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 ‘타발리스정’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JW중외제약은 올해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타발리스정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지난달 24일에는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됐다. 약가 고시에 따라 타발리스정 100mg의 약가는 2만3843원, 150mg의 약가는 2만9637원으로 책정됐다.

타발리스정은 경구용 혁신신약으로, 비장 티로신 인산화효소를 억제함으로써 대식세포에 의한 혈소판 파괴

를 감소시키는 기전을 갖췄다. 특히 타발리스정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복용 가능하다.

타발리스정은 미국 제약사 라이젤 파마슈티컬이 개발했으며 앞서 2018년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허가를 받았다. 같은 해 일본 킷세이제약이 라이젤 파마슈티컬로부터 일본, 중국, 한국, 대만에서의 개발, 상업화 권리를 확보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타발리스정 출시로 기존 치료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한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독일 하노버 산업 박람회 2025

HANNOVER MESSE 2025

참관 및 산업시찰단 모집

- 개최 기간 : 2025년 9월 22일(월) ~ 9월 26일(금)
- 개최 장소 : 독일 하노버 / Messegelände 하노버 전시 센터

EMO(European Machine Tool Exhibition)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작기계 및 생산기술 전시회로, 유럽공작기계협회(CECIMO)가 주관하는 국제적 권위의 산업 전시회입니다.

[행사 개요]

- 정식명칭 : EMO (Exposition Mondiale de la Machine Outil)
- 개최지 : 독일 하노버 (주 개최지)와 이탈리아 밀라노 순회
- 주최기관 : VDW (독일공작기계협회)
- 개최장소 : Deutsche Messe AG (하노버 전시장)

[주요 구성 및 프로그램]

- 전시회 : 공작기계, 자동화 솔루션, 생산기술 전시
- 기술 발표 및 세미나
- 특별 전시관 운영
- 워크샵 및 기술 교류 프로그램
- 신제품 발표회



2025년 하반기 및 2026년 상반기 박람회 및 전시회

NO	행사 명	개최 기간	국가 및 도시
1	중국 상해 알루미늄 박람회 [Aluminum China 2025]	25년 7월 09일 ~ 7월 11일	중국 / 상하이
2	중국 광저우 국제 태양광 박람회 [Solar PV World EXPO 2025]	25년 8월 08일 ~ 8월 10일	중국 / 광저우
3	에센 용접 절단 박람회 [SCHWEISSEN & SCHNEIDEN 2025]	25년 9월 15일 ~ 9월 19일	독일 / 에센
4	상해 복합소재 산업 박람회 [China Composite EXPO 2025]	25년 9월 16일 ~ 9월 18일	중국 / 상하이
5	태국 2025 SOUTHEAST ASIA [METEC] [GIFA] [WIRE,TUBE]	25년 9월 17일 ~ 9월 19일	태국 / 방콕
6	터키 이스탄불 알루미늄 박람회 [ALUEXPO 2025]	25년 9월 18일 ~ 9월 20일	터키 / 이스탄불
7	하노버 국제 공작기계 박람회 [EMO HANNOVER 2025]	25년 9월 22일 ~ 9월 26일	독일 / 하노버
8	독일 뉴렌베르크 기술 및 기기 박람회 [POWTECH 2025]	25년 9월 23일 ~ 9월 25일	독일 / 뉴렌버그
9	호치민 기계 전시회 [MTEALEX 2025]	25년 10월 08일 ~ 10월 15일	독일 / 호치민
10	독일 엘리베이터 박람회 [INTERLIFT 2025]	25년 10월 14일 ~ 10월 17일	독일 / 뉴렌버그
11	슈투트가르트 판금속 가공기술 박람회 [17th BLECHEXPO 2025]	25년 10월 21일 ~ 10월 24일	독일 / 슈투트가르트
12	STAINLESS STEEL 2025 WORLD CONFERENCE&EXHIBITION	25년 11월 18일 ~ 11월 20일	네덜란드 / 마스트리흐트
13	청두 국제 도시 파이프 라인 박람회 [CICP EXPO 2025]	25년 11월 26일 ~ 11월 28일	중국 / 청두
14	옌티엔 메탈 월드 엑스포 [MTM EXPO SHANGHAI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4일	중국 / 상하이
15	상해 조선해양기술 박람회 [MarinTEC CHINA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5일	중국 / 상하이
16	상해 국제 주조 주물 박람회 [CSFE Shanghai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4일	중국 / 상하이
17	상해 국제 금속 및 야금 박람회 [Metal World Expo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4일	중국 / 상하이
18	STEELFAB	26년 1월 12일 ~ 1월 15일	아랍에미리트 / 샤르자
19	2026 국제 금형 주조 다이캐스팅 전시회 [EUROGUSS]	26년 1월 13일 ~ 1월 15일	독일 / 뉘른베르크
20	와이어/튜브 전시회 2026 [Wire&Tube Düsseldorf 2026]	26년 4월 13일 ~ 4월 17일	독일 / 뒤셀도르프
21	대만 국제 파스너 박람회 [Taiwan International Fastener Show 2026]	26년 4월 22일 ~ 4월 24일	대만 / 가오슝
22	고기능 금속 전시회 2026 [Material JAPAN 2026]	26년 5월 13일 ~ 5월 15일	일본 / 오사카
23	밸브 박람회 아시아 2026 [Valve World Asia 2026]	26년 6월 22일 ~ 6월 23일	중국 / 상하이

 고객의 일정과 목적에 최적화된 맞춤형 일정 구성 및 솔루션 제공

 글로벌 박람회 및 전시회 에어텔 및 입장권 예약

 국가별 비자 신청 대행

 개별여행, 인센티브 관광 MICE 등 여행 솔루션 제공

www.sn miles.com

기업 전문 여행사, 에스앤마일즈



QR코드 스캔
카카오톡 채널 연결
등록후 상담원연결 가능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20 S&M빌딩 6층 T. 02-3487-2800 F. 02-583-4135 E. smkang@snmiles.com



농식품부, 농촌체험여행 프로그램 적극 발굴

정부가 농촌 소멸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농촌체험여행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시설인프라 개선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5일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5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 및 농촌여행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



한국벤처투자, 남성사계시장 장보기 활동

한국벤처투자는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3년 만에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한 성과를 지역사회와 나누기 위해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장보기 활동 등을 펼쳤다고 1일 밝혔다. 이대희 대표(앞줄 왼쪽 네번째)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시장의 주요 매장을 방문해 다양한 품목을 구매하고,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한국벤처투자



카카오임팩트, '시니어 디지털 스쿨' 강사 발대식

카카오의 사회공헌재단인 카카오임팩트는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시니어티처 발대식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시니어티처는 카카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프로그램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 교사로 활동한다.

/카카오

동원그룹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동원그룹이 환경 보호, 주주가치 제고에 앞장서며 지속가능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원그룹의 주요 계열사 3사(동원산업·동원F&B·동원시스템즈)는 2024년 한 해 동안의 ESG 경영 성과와 향후 추진전략을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각각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동원그룹은 ESG 경영 현황과 성과 지표, 중장기 계획을 임직원, 고객,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하고자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개해 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한미약품그룹

임성기연구자상 후보자 공모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신약개발에 대한 철학과 유지를 잇기 위해 설립된 임성기재단이 오는 8월 31일까지 '제5회 임성기연구자상' 수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임성기재단은 생명공학 및 의학약 분야의 탁월한 업적에 대해 시상하며, 대상 1명에게 상금 3억 원, 젊은연구자상 2명에게는 각 상금 5000만원 등 총 4억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198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연구자만 신청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현대글로벌비스, 해수부 '300만 CEU 해운의 탑' 수상

(차량 1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 단위)

운송실적 우수 車 운반선사 선정
지난해 총 459만 CEU 규모 운송
韓 수출물류 중추적 역할 수행 평가

현대글로벌비스는 해양수산부로부터 2024년 운송 실적이 우수한 자동차운반선사로 선정돼 '300만CEU 해운의 탑'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개최된 해운선사 사장단 연찬회 '해운의 탑' 시상식에서 현대글로벌비스는 300만 CEU(차량 1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 단위) 규모의 운송 실적을 인정받았다. '해운의 탑' 상상은 2023년부터 해수부가 주관해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운기업의 수출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운산업이 우리나라의 수출입



현대글로벌비스는 지난달 27일 개최된 해운선사 사장단 연찬회에서 '300만CEU 해운의 탑'을 수상했다. 김정석 현대글로벌비스 해운사업부장(오른쪽)이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으로부터 수상하고 있다.

물류99.7%를 담당하는기간산업이자 서비스 수출 1위에 해당하는 수출 효자산업인만큼 해운의 탑 수상은 의미가 크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총 459만CEU 규모의 완

성차를 운송했다. 이중 221만CEU는 한국에서 수출된 물량으로 해수부와 해운협회는 현대글로벌비스가 우리나라 수출 물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앞으로도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 확보와 운송 역량 확대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올 1분기 현재 97척 선대를 2030년 128척 규모로 늘려 수출 물동량 증가에 힘쓴다. 앞서 2024년 7000대 적재 가능한 신조선 4척을 도입했고 여기에 내년까지 8600대급 신조선 6척, 나아가 세계 최대 규모인 1만800대급 선박 20척도 확보해 2028년까지 해상운송시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연간 220만CEU 이상의 수출 물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선박 역량을 확보하고 국가 수출 물류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 및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업 체계도 공고히 다질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김혜경 여사, 여성경제인 성과 격려

'여성기업주간 개막식' 참석
"韓 위기극복에 앞장서주길 희망"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제4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 참석, 여성경제인들을 격려했다. 금탑산업훈장 수상 영예는 대홍코스텍 진덕수 대표에게 돌아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1일 저녁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내스티홀에서 '제4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을 개최했다.

개막식에는 여성기업인 및 여성기업 유관기관, 중소기업 협·단체장,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기업 관계자 등 500여명이 함께 했다.

김혜경 여사는 "여성기업, 내일을 여는 희망의 열쇠"라는 이번 행사의 슬로건처럼 여성기업인들이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에 앞장서주시길 희망한다"며 여성기업주간 개막을 축하하고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는 여성기업인들의 노고와 성과를 격려했다.

올해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은 전년과 같이 여경협, 한국여성벤처협

회,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여성경제인 단체가 공동주관했다.

또 행사에선 모범 여성 기업인에게 금탑·은탑 훈장과 포장 1점, 대통령 표창 4점, 국무총리 표창 6점의 정부 포상이 돌아갔다.

금탑훈장을 받은 진덕수 대표는 1992년 회사를 창업한 후 철강재 압연 정밀소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최초로 초정밀 압연기술을 국산화하고, 고강도 정밀 압연제품 분야 점유율 1위의 재압연 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덕수복지재단을 설립해 장애인과 치매노인 돌봄시설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책임 실천에도 힘썼다.

박창숙 여경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여성기업의 여성근로자 고용률은 남성기업 대비 2배 이상으로,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의 선봉에 서있다"면서 "저성장·저출생 시대에 여성기업이 희망의 열쇠가 되어 밝은 미래를 여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왼쪽 5번째)이 '반부패·청렴 협의체' 발족식에서 지역본부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소진공, '반부패·청렴 협의체' 발족

전국 12개 지역본부 중심 활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반부패·청렴 협의체'를 공식 발족했다. 소진공은 전국 12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부패 취약 분야 개선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반부패·청렴 협의체는 박성호 이사장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반부패 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소진공은 이를 위해 지역별 공공

기관과 연계해 반부패·청렴 활동을 한층 심화·확장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기관장 주도의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노력 강화 ▲지역본부별 부패 취약분야 진단 및 개선 계획 수립 ▲정기 회의를 통한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 교육 등을 실시해 조직 전반의 청렴 의식 제고에 힘을 예정이다.

박 이사장은 "이번 협의체 운영으로 '부패 제로(Zero) 조직 실현'을 목표로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청렴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AI 기반 기후·환경 아이디어' 공모전

환경부, 내달 31일까지 개최

환경부가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인공지능(AI) 기반 기후·환경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공모전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후환경 현안 해결 및 환경행정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공모전은 일반 국민은 물론 환경

부와 산하기관 직원도 참여할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문제의 예측 및 해결, 공공서비스 개선, 정책 지원, 행정 업무 효율화 등 각종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우리동네 환경정보 누리집'의 정보누리(QR)코드를 활용해 응모할 수 있다.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환경부장관상과 함께 대상 300만 원, 최우수상 200만 원, 우수상 100만 원 등이 수여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인사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부사장 신규임명) △감사팀장 윤원희 ◇신한은행(부사장 승진) △선릉중앙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김종완 △서초중앙금융센터 기업지점장 백승렬 △강북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김용구 △미아동지점장 김윤실

부음

▲박창화씨 별세, 이금재씨 배우자상, 종철(SK브로드밴드 infra솔루션팀)·종성씨(블루보드 사장) 부친상, 민홍숙씨(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사업처 팀장) 시부상=1일, 서울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3일 오전 8시 30분, 장지 분당추모공원 휴.



300kg의 적재 능력
VSLAM+매핑 작업 산업용 배송 로봇



대형공간, 대형쓰레기 강력한 흡입력
건식 산업용 로봇청소기



하방 압력 35Kg으로 물걸레청소
습식 상업용 로봇청소기



360° MULTI-SENSOR PERCEPTION
360도 전방향 안전 확보
스마트하고 안정적인 운송 능력

60CM PATH CLEARANCE
60CM
60cm 최소 주행 폭
다양한 확장 어플리케이션

산업용 배송 로봇
PUDU T300



큰 이물질도 쉽게 처리
미세한 먼지, 흙까지 효율적으로!

AI 카메라로 딥러닝 데이터 베이스
업데이트를 통해 AI 쓰레기 인식

1일 100,000㎡ 건식청소기
자동충전 MT1



지능형 네비게이션 시스템으로
정확히 공간분석하고 이동

자동충전, 자동급수 및 배수
바로 확인하는 청소 결과

습식, 건식
자동충전 CC1

산업 현장에도 AI 시대가 시작 된다!

IL SMART
ROBOT

IL스마트로봇 산업용 로봇청소기는 강력한 흡입력으로 어떤 얼룩, 찌든 때, 기름 때 및 먼지 처리에 뛰어나며 초대형 산업공간 및 오피스, 학교, 마트, 레스토랑, 로비, 병원, 물류센터, 공장, 대형식당, 고기집 등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이 가능한 똑똑한 AI청소기입니다!

제품문의 IL스마트로봇 | 1544-6299 24시간 상담



제품 상담신청

예술 노동자가 바라본 노동자들의 삶



홍 경 안 의
시시일각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노동자라 부른다. 법적으로는 자본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 계약을 맺는 이를, 경제적으로는 생산 수단을 일절 갖지 않고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삼는 이로 규정한다.

예술가도 노동자다. 작품제작을 위해 노동력을 투자하고 그 노동력을 통해 여러 유형의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다만 예술가의 노동 가운데 절반은 사유하는 노동이요 추상적 노동이다. 다른 절반은 실질노동자로서의 노동이다. 자본주의 체제가 정의해온 노동과는 달리 노동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되묻는 노동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의 삶을 예술노동으로 빚는 건 어떤 노동일까. 그것은 노동자로서의 예술가를 수면 위로 표상화 하는 노동이면서, 공동체 속 노동(자)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노동이다. 동시에 그 노동 자체로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을 창조하는 실천적 노동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관통하는 작업 중 하나가 고(故) 구본주 작가의 <지나간 세기를 위한 기념비>(2001)이다.

서울시 영등포구 흙플러스 영등포점에 위치한 이 공공미술 작품은 모란미술관이 제정한 제1회 모란미술상(1995)을 받은 <이대리의 백일몽>의 후속 버전으로, 동판을 두드려 인체조각을 만드는 작가 특유의 기법으로 제작된 여러 작품 가운데 하나이다.

내용은 예술 노동자가 바라본 노동자들의 위태로운 삶이다. 12미터 길이의 곡선형 스테인리스스틸 구조물 위에 뿔겨나가듯 서 있는 이 작품의 주인공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직장인이다. 아슬아슬하게 작은 발판을 디디고 있는 형상과 구도에서 그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오늘을 읽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더 있다. 1987년의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시작된 셀러리맨 연작을 포함해 노동자의 권리와 인간성 해방을 다룬 소품 군상인 <파업>(1990) 시리즈, IMF시기 언제 회사에서 잘릴지 몰라 초조해하며 눈치를 봐야했던 직장인들의 일상을 담은 <눈칫밥 삼십년>(1999) 등이 그렇다. 삶의 애환이 서린 우리네 소시민들의 인생을 녹

여낸 작업들이다.

이처럼 구본주가 주목한 것은 대체로 우리 역사와 보통사람들의 메마른 삶이었다. 고달프고 가난한 이들, 자본주의의 그늘 아래 힘없이 웅크려 있으나 새날이 오기를 포기하지 않은 나와 너, 운명처럼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과 가장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옮기는 것이 그에겐 중요한 일과였다.

이는 사실 노동자 계급성의 문제이자, 민중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안타까움, 경애에 관한 문제였다. 즉, 예술로서 노동이라는 인간의 존엄한 본성에 족쇄를 채우는 자본의 힘에 맞서며 서민들의 거친 삶과 일상의 주름을 어루만지고자 했던 것이다.

탁월한 예술노동으로 노동예술을 일구며 예술이라는 사회적 비석을 새긴 구본주는 2003년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그때 나이 서른일곱, 너무 빨리 하늘의 별이 됐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의 유작 제목도 <별이 되다>(2003)이다. 형광폴리코트르 떠낸 1000개의 작은 셀러리맨 조각을 천장에 매달아 하늘의 별처럼 우리러보게 만든 설치작품이다. 그렇게 구본주는 작품 속에서처럼 우리 곁을 떠나 진짜 별이 되었고, 그의 예술은 여전히 우리를 울려다보게 한다.

/미술평론가

새 정부·집권여당의 첫 과제는 ‘물가안정’



기지 수첩
박 태 홍
(정치부)

집에 계란이 없어서 기업형 슈퍼마켓(SM)에 갔다. 계란 한 판 가격이 8990원인 것을 보고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계란 한 알에 300원, 이제 집에서 계란 프라이를 해 먹을 때마다 눈치가 보일 것 같다.

내가 산 계란은 난각번호 4번 계란. 0.05 제곱미터(m²) 이하의 작은 케이지에서 사는 산란계가 낳은 알이다. 공장형 사육장에서 나오는 제일 싼 계란이다. 내가 산 계란 옆에 있던 알이 큰 특란은 9900원이었다. 바야흐로 계란 한 판 1만원 시대가 왔다.

새 정부는 계란값이 오르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생산자단체에 현장조사를 실

시하는 등 가격 담합 시도를 의심한다. 생산자단체에선 정부가 케이지 면적 확대 정책에 따른 생산비 상승을 외면하고, 유통과정의 폭리보다 애꿎은 계란 생산자에만 책임을 전가한다고 반박한다. 대책 없이 치솟은 계란값에 제과, 제빵, 외식 등 관련 산업의 물가를 상승시키는 ‘에그플레이션(Eggflation)’까지 우려된다는 업계 반응이 나온다.

계란만 오르나. 본격적인 폭염과 장마가 찾아오며 채솟값도 오를 예정이다. 라면 등 밥상 물가도 올랐다. 지하철 등 공공요금 상승까지 사회 전반의 물가가 뛰고 있다.

러·우 전쟁과 중동 정세 불안정으로 원자재 공급 불안정이 우려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에 시민과 정부 당국자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집값도 급등세로 돌아서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내놓은 상태다.

상황이 이렇듯, 새 정부와 여당의 제1과제는 물가 안정이 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라면 한 봉지에 2000원”이라고 언급하며 물가 상승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TF를 꾸려 활동 중이다. 유원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누적된 고물가로 민생에 큰 부담이 되는 생활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포부를 밝혔다.

정부의 2차 추경안에 담긴 약 13조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곧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정대는 내수 진작 효과를 최대화하고 재정 투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최소화하는 세심한 정책 실행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7월 2일 (금 6월 8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비빌 언덕이 있었으면 좋겠다. 48년생 모난 돌이 정 많은 법이니 오늘은 매사에 자중하라. 61년생 자기만 생각하면 조화가 깨진다. 72년생 뜻밖의 횡재수가 있으니 로또를 사볼까. 84년생 정답을 알아도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



37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잘 풀린다. 49년생 확실한 의사표현이 매우 중요하다. 61년생 일의 결과가 좋아 명예가 깨진다. 73년생 병이 왔으니 약도 주여지지 실망은 이르다. 85년생 서예를 조금씩 알아가는 소소한 재미가 있다.



38년생 히로아역을 얼굴에 나타내지 마라. 50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으니 쉬지 말고 노력. 62년생 한밤중에 비단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 74년생 마음이 상쾌하니 일도 잘 풀리는 행운. 86년생 나의 잣대로 남을 평가하지 마라.



39년생 과대포장은 상대가 실망. 51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63년생 광기와 천재성의 거리는 결국 성공으로 측정. 75년생 힘든 일은 자식의 도움으로 해결. 87년생 머느리에게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마라.



40년생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실수가 없다. 52년생 오늘은 당신이 주인공이니 무슨 일이트 참여. 64년생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76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88년생 인색하다보니 만남에서 실수를 한다.



41년생 모두 가질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 53년생 머리가 좋다고 잘사는 것은 아닐 텐데. 65년생 성공한 사람의 뒤를 따르는 것도 해를 만한다. 77년생 가진 돈을 체크하고 신중하게 지출을 해야. 89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모임을 자제.



42년생 망해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는 형국. 54년생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지 못한다. 66년생 부모님의 건강과 안부를. 78년생 점(占)은 숫자의 과학이니 미신이라는 말은 무지함. 90년생 머리는 하늘을 이듯 조상을 숭배.



43년생 길 한남을 잡아서 이사를 하도록. 55년생 음식을 어느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시각적 맛도 탄생. 67년생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79년생 장수선무(長袖善舞)도 실력이다. 91년생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떠나보자.



44년생 검은색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56년생 주변을 원망하기보다는 일의 장애이유를 찾아보자. 68년생 아항 속 물고기처럼 변화가 없다. 80년생 진실은 밝혀져 들수록 때가 묻는다는 말이. 92년생 머리가 맑고 기분이 상쾌한 날이다.



45년생 오늘 걸어야 내일 뛸지 않는다. 57년생 우물에서 송봉 찾기 말고 매사에 순서대로. 69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을 하게 된다. 81년생 슬픔도 시간이 가면서 지나간다. 93년생 맑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 가려서 하라.



46년생 평온한 바다에서 한가하게 뱃놀이. 58년생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70년생 직장에서 기본 소식이 들려온다. 82년생 비판 불평을 피하며 다시 하려는 의지만으로도 가피를 이어받는다. 94년생 조사가 끝났으니 이제 실행.



47년생 결혼은 돌이 했지만 인생은 결국 혼자 가는 길. 59년생 조상님 제사는 지극한 마음으로. 71년생 이별이 슬습하면서 슬프다. 83년생 학습효과는 반쪽에서 오니 도전정신을 함양. 95년생 써지 않으려면 물은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할 것이다.

김상회의四季

백중의 의미



백중(百中)은 음력7월15일로 백중(百種)이라 칭해지기도 한다. 중원(中元)이나 망혼일(亡魂日)로 불리기도 하는 백중은 수행처에서 여름 안거를 해제하고 나오신 청정 스님들의 수행 공력과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함께 구하는 것이다. 정성스레 차린 음식과 5가지 과일, 향촉과 가사 등으로 공양을 올리면 이 인연 공덕으로 지옥문이 열려서 모든 지옥에 있는 유주, 무주고혼들이 함께 부처님의 법음을 듣고 지옥고를 면하고 해탈지를 얻는 날이라고 알려져 있다.

대승불교권에서는 부처님의 상수제자인 목련련존자가 그 어머니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올린 재가 그 효시이다. 살아생전에 불선업을 많이 지은 목련련존자의 어머니는 사후에 지옥에 떨어졌고, 부처님 제자 중 신통제일이라는 목련련존자는 아무리 신통을 써봐도 어머니는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곤 했다. 결국, 부처님께 올면서 도움을 요청했고 석가 세존은 인도 당시의 우안거를 끝내고 나오는 비구승들에게 오미백과(五味百果)를 정성껏 공양 올리며 축원 회향을 청하라고 일러주신다.

이것이 우란분재(盂蘭盆齋)이며, ‘목련경(目連經)’이나 ‘우란분경’에 보면 7대의 선망 부모와 조상을 위하여 참회와 발원을 하는 제를 올리면서 안거를 해제하고 나오는 청정 스님들에게 밥 등의 음식과 5가지 과일 향촉과 의복으로 공양하게 되면 이 정성으로 아귀(餓鬼)지옥에서 고통받는 선망 조상 영가들이 구제받을 수 있다는 데서 유래했다. 백중은 지옥문이 열린다는 날로 지장경의 한 대목을 빌리자면, 재를 지내는 공덕의 삼분의 일은 영가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칠분의 일은 재를 올리는 자손에게 공덕이 돌아간다고 했다. 백중날은 절에서 불보살님의 가피력을 의지하는 것은 조상님들은 물론 자손들에게도 복이 되는 일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0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06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 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153종

스도쿠3650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 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컬러스도쿠110

주사스도쿠 120

스도쿠3650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 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파일을 출간하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7			8		1		
6				1		3		9
			4					5
4				8			7	
8								6
		7				9		8
7						5		
1		6		7				3
		5		6			2	7

2		3						9
				3				
			7	1	2			5
		2	4		9	8	6	
		8					2	
	7	4	8		3	9		
7			9	3	6			
					7			
3						5		4

2	7	8	9	1	9	8	6
8	9	6	8	2	9	7	1
1	7	9	8	6	8	2	2
8	8	7	6	2	9	2	1
9	1	9	2	7	8	2	6
2	6	2	1	9	8	8	9
9	2	7	9	6	7	1	8
6	8	8	2	1	7	9	9
7	9	1	8	9	6	2	2

7	2	9	1	8	2	9	6	8
9	6	8	2	7	9	1	2	8
8	2	1	9	8	6	9	7	1
1	9	6	8	2	8	7	2	9
2	7	8	9	9	1	8	8	6
8	9	8	6	2	7	2	9	1
9	8	9	2	1	2	6	8	7
2	1	7	8	6	8	2	9	9
6	8	2	7	9	9	8	1	2

서울시교육청, 학교 소송지원 강화 1000만원 직접 집행·협의체 신설

학교 현장 업무·예산 부담 완화
온라인 플랫폼 통해 신속 자문
고난이도 소송시 협의체 공동대응

서울시교육청이 법률 자문 확대, 소송비용 직접 지원, 소송협의체 신설 등 학교 법적 분쟁 대응을 위한 종합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학교가 법적 분쟁의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대상 소송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복합시설 운영 관련 민원과 소송이 급증하면서 학교 현장의 업무·예산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5월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법률지원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학교 자체를 위한 체계적 법률 지원이 골자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소송지원 강화 방안은 ▲법률 자문 강화 ▲예산·전문인력 직접 지원 ▲소송협의체 운영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학교 자문 지원은 기존 1인 고문변호사 의존 체계에서 다층적 자문 체계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학교의 법률 자문이 주로 유선 문의나 1인 변호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시교육청

사 체계에 의존하여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교육청은 '학교 법률 SOS'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위험 사안 발생 시 신속히 자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문변호사와 교육청 소속 변호사를 포함한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가 자문을 제공한다.

둘째로 소송비용과 전문인력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학교가 행정소송을 직접 대응하고 소송비용도 자체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육청이 변호사 선임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송비용(최대 1000만 원)을 직접 집행해 학교의 부담을 줄인다.

학교 소송협의체도 신설된다. 복합시설 운영 등 고난이도 소송 발생 시 기존에는 학교가 단독으로 대응했지만, 앞으로는 학교, 교육청, 지원청, 관계

부서,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돼 공동 대응에 나선다.

이 협의체는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기준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협의체는 학교 요청에 따라 중대성, 복잡성, 긴급성 등을 기준으로 선별 구성되며, 전문적 판단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대응을 통해 현장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학교가 법적 분쟁으로부터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법률 행정 체계를 강화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서울교육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교육부,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금일부터 학자금 대출 신청 가능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대출금리 상한이 낮아진 데 따른 조치로,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청년들의 학업 지속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2학기 학자금 대출은 금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금 대출 신청은 10월 23일, 생활비 대출 신청은 11월 18일까지다. 생활비는 학기당 최대 200만원,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가능하다. 등록금은 실제 소요액 전액 신청할 수 있으나, 일반 상환 대출의 경우 개인별 총한도가 적용된다.

올해 2학기부터는 신청 편의성을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해졌다. 신청 기간 중이라면 요일에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24시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구독대학' 시범운영... 수강생 모집

고려대·경희대 등 10개 대학 참여

서울시가 대학 강의를 '구독'하는 시대를 연다. 시민이 원하는 강의를 고려대, 경희대, 중앙대 등 주요 대학에서 직접 골라 듣는, 맞춤형 평생학습 모델이 본격 도입된다.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은 시민이 듣고 싶은 강의를 원하는 대학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는 시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구독대학'의 수강생을 모집하고 시범운영 한다

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구독대학은 직업훈련 중심의 기존 대학 연계 프로그램과 차별화된다. 인문교양, 문화예술, AI·디지털 등 지적 호기심과 자기계발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됐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성서대, 홍익대 등 10개 주요 대학이 참여해 총 15개 강좌를 7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개설한다.

/이현진 기자

성남시, 지역 학생 AI·SW 미래교육 지원

두산에너지리티-LIG넥스원 업무협약

성남시가 지역 학생들을 세계적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산업계와 손잡고 인공지능(AI) 미래교육 지원에 나선다.

시는 지난 30일 시청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동철 두산에너지리티 부사장, 신익현 LIG넥스원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융합인재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산에너지리티와 LIG넥스원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성남고, 판교고 등 5개교 학생들을 대상으



성남시는 지난 30일 성남시는 지난 30일 두산에너지리티, LIG넥스원과 '글로벌 융합인재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김동철 두산에너지리티 부사장, 신상진 성남시장, 신익현 LIG넥스원 대표이사

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성남(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8곳 추가

용산 신창·구로 개봉 등 선정
연내 정비계획 수립용역 착수

서울시는 30일 '2025년 제3차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8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총 122곳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전 공모 탈락 사유 해소 여부 ▲주민 갈등 상황 ▲진출입로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했다.

용산구 신창동 29-1일대는 이전에 미선정된 지역이나, 수시 선정 등 그간 개선된 후보지 선정방식을 반영해 재신청한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가 강한 지역으로 후보지로 선정됐다. 남측에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위치해 대상지는 향후 배후 주거단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로구 구로동 466일대는 구로차량기지 인근의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열악한 노후 주택지다. 개봉동 153-19

〈2025년 제3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자치구	위치
용산	신창동 29-1 일대
구로	구로동 466 일대
구로	개봉동 153-19 일대
도봉	방학동 641 일대
동작	신대방동 344-132 일대
동작	흑석동 204-104 일대
동작	상도동 201 일대
성북	삼선동 1가 277 일대

/서울시

일대는 개봉3 주택재건축 남측에 연결한 노후 저층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도봉구 방학동 641일대는 여러 차례 재개발 후보지에 미선정된 지역이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높이완화 등 변경된 정책 반영으로 이번 후보지로 선정돼 도봉산 인근의 양질 주택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일대(신대방3)는 보라매공원 인근지역으로 진출

입로 요건을 충족했으며, 흑석동 204-104일대(흑석10)는 흑석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자연경관지구 등을 고려한 건축밀도에 대한 사전타당성 용역이 진행됐다. 향후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변의 주택사업과 연계한 기반시설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작구 상도동 201일대(상도23)는 장승배기역 인근 지역으로 호수밀도,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고 접도율이 낮은 열악한 노후 주택지로 주변 상도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타운과 어우러진 정주환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북구 삼선동1가 277일대(삼선3)는 삼선3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걸쳐있어 건축밀도에 대한 사전타당성 용역이 진행됐다. 대상지 동측삼선5구역 재개발사업과 함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은 올해 하반기 내에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 시진핑 실각설 보도 영향?...中, 단결투쟁·반부패로 '안팎 다잡기'
▲ 이스라엘, 가자지구 해변 카페 공습..."40명 넘게 사망"
/사진 뉴스스

▲ 트럼프발 관세 유예 종료 임박...각국, 협상 혼란 속 '눈치 전쟁'
▲ 이란 "美와 대화하려면 시간 필요...우라늄 농축 재개 준비돼"

▲ 차기 연준 의장설 베네토..."대통령의 결정에 따를 것"
▲ 백악관 "9일까지 일본 외 다른 무역상대에 초점 맞출 것"



삼양식품
불닭 열풍 이어갈
‘맵’ 시리즈 선배
L1



Life

콜마그룹
분쟁 속
계열사 재편
L2



요양시설 짓고 보육환경 조성... 요람서 무덤까지 ‘따뜻한 동행’



경기도 남양주 수동면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 ‘하나케어센터’



국공립어린이집인 인천 부평구의 ‘부개2동 하나어린이집’

저출산·고령화 사회문제 해결 앞장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하나금융공익재단

하나은행, 증권, 캐피탈 자본 출연
공익재단 설립, 사회문제 해결 나서

고령층 위한 ‘하나케어센터’ 구축
매년 10억 지원... 본인부담금 낮춰
고려대 산학협력 맺고 간호·진료

하나금융공익재단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동행’이란 미션을 갖고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학부모, 교사, 아동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을 구축하고, 고령층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요양시설도 마련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2명은 65세 이상이고, 여성 한 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는 0.75명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이하)가 줄며 돌봄이 필요한 곳곳에 하나금융공익재단이 함께 하고 있다.

하나금융공익재단은 하나은행과 하나증권(옛 하나대투증권·하나IB증권), 하나캐피탈이 자본을 공동 출연해 설립됐다. 제1호 노인전문요양시설 ‘남양주 하나케어센터’와 제1호 영유아보육시설 ‘신길동 하나 어린이집’으로 시작한 활동은 각 지역에 위치한 노인요양원 후원과 현재 100호 어린이집 설립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령화 문제 해결 ‘하나케어센터’

하나금융공익재단은 지난 2009년 은행권 최초로 경기 남양주 수동면에 하나케

어센터를 구축했다. 하나케어센터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고령층이 머무를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이다.

특히 하나케어센터는 대지 면적이 1만 5126㎡에 달해, 어르신들이 머무르는 개별 호실의 넓이가 도심형 요양원의 두배에 가깝다. 통상 전용 13㎡ 정도인 1인실(7실)은 최대 26㎡이다. 2인실(30실)이나 4인실(8실)도 크게 지었다. 해외나 지방에서 찾아온 가족들이 머무를 수 있는 2채의 게스트하우스도 마련했다.

센터 상주직원도 많다. 법적인력은 계약의사 1명과 요양보호사 47명을 포함한 총 64명이지만, 하나케어센터는 계약의사 3명과 요양보호사 59명을 포함한 총 92명이 근무하고 있다. 센터에 머무를 수 있는 어르신(99명)만큼 센터 상주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건강회복과 재활을 돕기 위해 고려대학교 간호대학과 산학협력을 맺고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료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 경기 도립 남양주 노인전문병원이 연계진료를 한다.



하나케어센터 어르신 활동사진.

/하나케어센터

영유아 위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전국 곳곳에 어린이집 100개 건립
보육 사각지대에 안정적 환경 제공
교사·직원 채용 등 고용창출 성과

하나금융공익재단은 매년 하나케어센터에 1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어르신 1명당 약 1000만원의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요양급여는 요양등급에 따라 월 237만~271만원으로, 건강보험기금에서 지원을 비용을 제외하면 본인부담금은 48만~54만원(식대 등 비급여 제외)이다. 1인실은 상급침실료 본인부담금이 1일 6만5000원, 2인실은 1일 3만5000원이다.

◆“일 가정 양립”...100호 어린이집 건립

하나금융공익재단은 학부모, 교사, 아동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립했다.

재단은 보육수요에 대비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서울시 영등포구에 구립 하나푸르니신길어린이집, 서울시 서초구에 구립 하나푸르니반포어린이집

을 설립했다.

하나금융관계자는 “낮아지는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아이를 맡기더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해 설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공익재단은 1500억원 규모의 100호 어린이집 건립프로젝트를 통해 2018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전국 곳곳에 100개의 어린이집을 건립했다. 농어촌, 섬마을 등 보육 취약 지역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 등 지역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국공립 어린이집 90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10개를 완공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전국 곳곳에 어린이집을 건립하면서 보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농어촌 지역과 장애 아동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교사를 채용하면서 고용창출 성과도 얻고, 부모의 양육부담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아이들을 시간제로 돌볼 수 있는 돌봄 어린이집도 운영한다.

365일형은 만1세부터 만6세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또는 다음날 오전 7시 30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 금액은 1시간당 3000원, 1일 5만원이다. 주말 공휴일형은 만1세~만6세 미취학아동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맡길 수 있다. 이용금액은 1시간당 3000원이다. 돌봄어린이집은 총 50곳으로 전국에 위치해 있으며 예약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KBO 홈런더비 출전자 8명 ‘100% 팬 투표’로 뽑는다
▲사우디 알힐랄, 클럽월드컵 이번 연출...EPL 맨시티 꺾고 8강행
/사진 뉴스스

▲이정후, 4경기 연속 무안타 침묵...타율 0.240 하락
▲KBO 떠나 예능 택한 이종범 “힘든 시기 보내는 후배들 위한 선택”

▲웜블던 3연패 노리는 알카라스, 1회전부터 폴셋 끝에 진땀송
▲삼성 김영웅, 비상계엄 옹호 영상에 ‘좋아요’ 눌러 논란